

연구와 전시

서직수의 눈빛과 소나무 숲 사이 바람을 찾아서

'진천 영수사 괘불' 자세히 읽기

우리 신발의 역사와 문화를 다룬 최초의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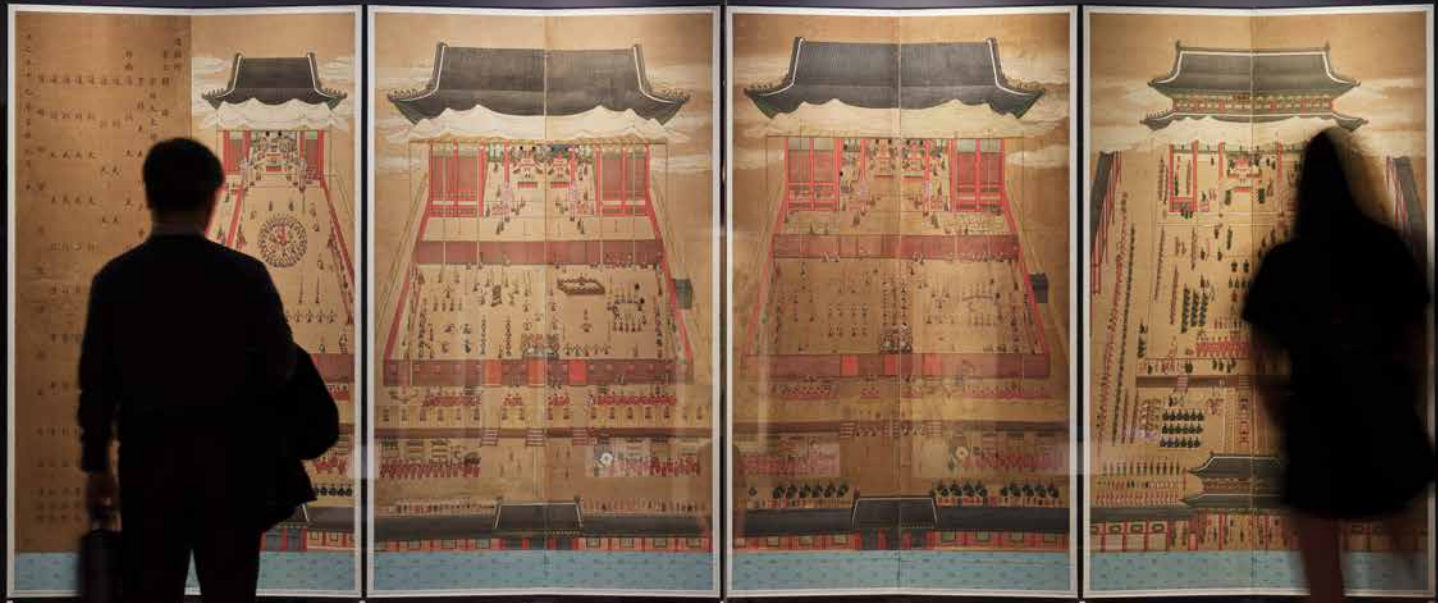
K-뮤지엄

오랜 자부심, 새로운 감성

사람과 이야기

애뜻한 마음에 탄탄한 교육으로 응원하다

시간과의 대화, 국립나주박물관





04

국립중앙박물관 서화실 전시품 교체



08

불교회화실 '진천 영수사 괘불'



16

국립대구박물관 개관 30주년 특별전

〈한국의 신발, 발과 신〉



28

미국 휴스턴박물관 한국실 개편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창간일 1970년 7월 1일
발행일 2024년 6월 1일
발행인 윤성용
발행처 국립중앙박물관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용산동)
www.museum.go.kr
편집인 김원길
편집위원 곽홍인 류정환 배진희 이민수 이수경
이진민 이현주 전인지 최한 허형욱

기획·편집 김미소 명성은
제호 최순우
디자인 큐라인
사진 박재홍
영상 플러스메이커스
인쇄 (주)태광피엔디
문의 02-2077-9575
ISSN 1226-038X

THE MUSEUM NEWS VOL. 634

이 책에 수록된 글과 사진,
일러스트레이션의 저작권은
국립중앙박물관과 해당 자료 소장자에게
있습니다. 외부 필자가 제공한 콘텐츠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4 국립중앙박물관

본 간행물은 FSC 인증을 받은 종이와
콩기를 잉크를 사용해 제작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 바로가기

연구와 전시

- 04 전시
서적수의 눈빛과 소나무 숲 사이 바람을 찾아서
- 08 톨아보기
'진천 영수사 괘불' 자세히 읽기
- 12 전시
가야로 온 세계유산 백제
- 14 전시
금산사의 정신, 미륵의 마음을 담다
- 16 전시
우리 신발의 역사와 문화를 다룬 최초의 전시
- 18 학술
통일신라 금동보살입상, 다시 빛을 보다
- 20 학술
현장을 연구하다, 박물관 연구 활동의 새로운 가능성

사람과 이야기

- 22 인터뷰
애뜻한 마음에 탄탄한 교육으로 응원하다
- 24 박물관 여행
시간과의 대화, 국립나주박물관
- 28 K-뮤지엄
오랜 자부심, 새로운 감성
- 30 잠시 멈춤
영산의 모임, 진천 영수사 괘불
- 32 교육
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 교육 아카데미
- 34 주요 소식
- 36 국립박물관 주요 전시 일정
- 38 박물관문화향연
초여름의 청량한 문화향연
- 39 국립중앙박물관 큐레이터와의 대화

국립중앙박물관 서화실(202-4·5호)에서
조선시대 그림과 글씨 24건 36점을
새로 전시 중이다.
김홍도(1745~1806 이후)와
이명기(1756~1813 이전)가 함께 그린
〈서직수 초상〉(보물) 등
다채로운 작품들을 선보인다.
특히 2021년 고 이견희 회장 기증
〈임진진찬도 壬辰進饌圖〉와 2022년 구입한
〈한성부 관리들의 모임 五部契會圖〉 등
처음 공개하는 서화도 포함되어 있다.

가림사(가림사)에 대한 소개를 전하는 표지

서직수의 눈빛과 소나무 숲 사이 바람을 찾아서

김홍도와 이명기가 함께 그린

조선시대 초상화 걸작 〈서직수 초상〉

〈서직수 초상〉^{도1}은 당대 최고의 초상화가 이명기가 얼굴을, 김홍도가 몸체를 그린 합작품이다. 두 화가 모두 정조(재위 1776~1800) 어진 제작에 참여했을 정도로 그림 실력이 뛰어났던 화가들로 이 초상화에서도 최고의 기량을 발휘했다. 초상화의 주인공인 서직수(1735~1811)는 1765년(영조 41) 진사시에 합격하여 홍산현감, 현릉원령, 금산군수, 가산군수 등을 지냈다. 현재의 서울 명동과 소공동에 살았으며, 문학과 예술을 가까이했던 인물이다.

62세의 서직수는 도포와 동파관 차림으로 선비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했다. 이명기는 얼굴에 연갈색 안료를 붓으로 여러 번 칠하여 자연스럽게 입체감을 주어 사실적으로 묘사했으며, 눈동자의 홍채가 유난히 생생하게 빛나도록 표현했다. 김홍도는 탄력 있는 선으로 옷주름을 그리고 음영을 열게 넣어 선비의 포를 부드럽게 표현했다. 앞을 응시하는 형형한 눈빛, 백색 포를 입고 선 단정한 자세, 얹전하게 가슴에 묶은 검정 띠, 장식 없는 민뚝자리 위를 밟고 선 흰 버선발까지 곳곳한 선비의 풍모를 드러내고 있다.

〈서직수 초상〉은 당대 최고의 화가였던 두 사람의 기량이 발휘된 걸작이라는 점 외에도, 조선시대 초상화에서는 흔치 않은, 서 있는 전신 초상화로 그려진 점, 흑백의 강한 대비와 버선발을 드러낸 파격, 초상화 상단에 서직수 자신이 남긴 평 등 여러 가지 흥미로운 감상 포인트가 있다.

무더운 날의 피서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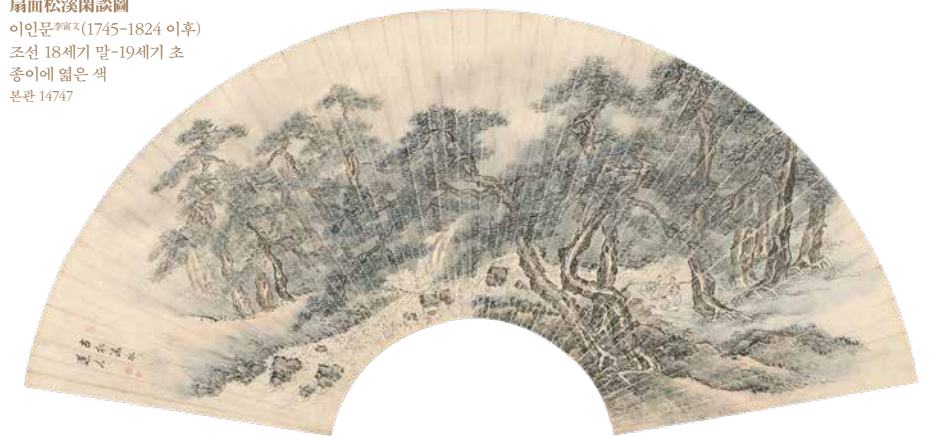
여름의 계절감을 담은 그림 감상

새로 전시되는 그림 중에는 여름의 계절감을 담은 작품들이 여러 점 있다. 이인문의 〈소나무 숲 계곡에서의 담소〉^{도2}는 커다란 부채 면에 그려졌는데, 뽕뽕한 소나무 숲 계곡에서 세 사람이 앉아 한가로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다. 비가 온 뒤인 듯 계곡에 물이 불어 힘차게 흐르고 있는 모

도1.
서직수 초상 徐直修肖像
이명기(1756~1813 이전)
김홍도(1745~1806 이후)
조선 1796년
비단에 색
보물
탁수 5688



도2.
소나무 숲 계곡에서의 담소
扇面松溪閑談圖
이인문(1745~1824 이후)
조선 18세기 말~19세기 초
종이에 엮은 색
본관 14747





도3.
바위에 기대 물을 바라보다 倚巖觀水圖
이한철 李漢徹 (1812~1893 이후)
조선 19세기
종이에 엷은 색
덕수 3923-3

도4.
고기잡이의 즐거움 釣魚樂圖
정 鄭 이형록 李亨祿 (1808~1883 이후)
조선 19세기
종이에 엷은 색
덕수 2933-7

도3

습으로, 여름 계곡의 정경이 시원하게 표현되었다. 그야말로 부채 그림, 즉 선면화에 잘 어울리는 그림 주제다.

19세기 조선의 대표적인 화원화가 이한철의 〈바위에 기대 물을 바라보다〉^{도3}에서도 시원하게 흐르는 계곡물을 배경으로 한 인물들이 그려졌다. 이형록의 〈고기잡이의 즐거움〉^{도4}은 아들과 아버지로 보이는 두 사람이 냇물에서 큰 물고기를 잡아 기뻐하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여 보기만 해도 시원해진다. 계곡 물소리와 소나무 사이 바람이 느껴지는 그림을 그리고 감상했을, 또는 그런 그림이 그려진 부채를 부치며 더위를 쫓았을 조선시대 사람들의 운치 넘치는 피서법을 떠올려 보게 된다.

도4

박물관 소장품으로

처음 전시하는 글과 그림

이번 전시품 중 2021년 고 이진희 회장 기증품인 〈임진진찬도 壬辰進饌圖〉와 2022년 구입한 〈한성부 관리들의 모임 五部契會圖〉등 박물관 소장품으로 처음 전시하는 서화 7건이 포함되어 있다. 〈임진진찬도〉는 1892년(임진년)에 열린 고종(재위 1863~1907) 즉위 30주년과 41세를 경축하는 궁중 행사를 그린 8폭 병풍이다. 이 작품은 현재 유일하게 전하는 〈임진진찬도〉로, 고종 친정기(1873~1907) 왕실 위상 강화를 위한 노력과 궁중 행사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서화실에서는 이밖에 도 16~19세기의 산수화와 인물화, 기록화, 16~17세기의 모임 그림, 탄은 彈隱 이정 李寧 (1554~1626)의 대나무 그림 등과 함께 김홍도, 철종(재위 1849~1863)의 글씨까지 다양한 서화를 감상해 볼 수 있다. 이번엔 새로 전시된 서화들은 오는 8월 4일까지 전시된다.



최초 공개하는 〈임진진찬도〉를 8월 4일까지 서화II실에서 감상할 수 있다.

230년 전 초상화 주인공의 진심은?

큐레이터와의 대화에서 만난 서직수 초상

〈서직수 초상〉의 명성을 증명하듯 초상화 앞에는 보기 드물게 많은 관람객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날 서화실 큐레이터와의 대화 주제는 ‘김홍도와 이명기가 함께 그린 서직수 초상’이었다. 오늘은 초상화 한 점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초상화 주인공인 서직수가 그림 화면에 남긴 화평에 대해서 참여하신 분들과 생각을 나누어 보려고 한다는 말로 진행을 시작했다. 이십 대부터 칠십 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관람객들은 ‘어떤 평을 남겼길래?’라는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지었다.

당대 최고의 화원화가 두 사람의 합작품인 〈서직수 초상〉은 풍성한 흰색 포를 입고 선 주인공의 깨끗한 자세, 섬세한 붓질로 표현된 얼굴, 앞을 응시하는 형형한 눈빛, 흑색과 백색만으로 표현한 절제된 아름다움 등으로 초상화를 마주하는 사람들을 사로잡는다. 그야말로 굉장한 아우라를 가진 명품으로 꼽을 수 있는 초상화다. 그런데 이 ‘명품’ 초상화의 주인공은 과연 그려진 자기 모습에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자신의 초상화에 만족했을까? 서직수는 화면 상단에 다음과 같은 평을 남겼다.

이명기가 얼굴을 그리고 김홍도가 몸을 그렸다. 두 사람은 이름난 화가들이지만 한 조각 정신(영대 靈臺)은 그려내지 못하였다. 안타깝도다. 내가 산속에 묻혀 학문을 닦아야 했는데 명산을 돌아다니고 잡스러운 글을 짓느라 마음과 힘을 낭비했구나. 내 평생을 돌아보며 속되게 살지 않은 것만은 귀하다고 하겠다.

1796년 여름날에 십우헌 62세 늙은이가 자평하다.

李命基畫面 金弘道畫體 兩人名於畫者 而不能畫一片靈臺. 惜乎 何不修道於林下 浪費心力於名山雜記.
概論其平生 不俗也貴.
丙辰夏日 十友軒 六十二歲翁 自評.

초상화의 주인공은 초상화에 대해 아쉬움을 피력했다. 즉, 이름난 화가들이 그린 그림이지만 자신의 정신까지는 그리지 못했다는 평가다. 스스로 큰 규모의 진신 초상화를 제작한 것에 대한 씁스러움에서 기인한 말이었을 수도, 조금은 가볍게 남긴 ‘회제 載題’였을 수도, 또는 당시에 으레 했던 표현법이었을 수도 있다. 수요일 밤 큐레이



터와의 대화에서는 역사적, 사실적 타당함을 따져보기보다는 조금은 자유롭게 초상화 주인공의 진심을 가늠해 보았으면 했다. “초상화의 주인공 서직수의 진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아쉬웠을까요? 아니면 마음에 들었지만, 어떤 겸양의 표현이었을까요? 혹은 다른 의미가 있었을까요?”

서직수 초상화를 함께 감상하고 화평을 읽은 후 던진 질문에, 처음부터 느껴졌던 열기만큼 많은 분이 눈으로, 혹은 손을 들어 대화에 참여하고자 했다. 책 한 권을 번쩍 든 60대 남성 분은 아일랜드 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1890년에 쓴 『도리언 그

레이의 초상』을 보면 초상화 주인공은 정말로 초상화에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 했다. 30대 여성 분은 독일 화가 알브레히트 뒤러의 〈자화상〉을 예로 들며, 자신의 초상을 남긴다는 것은 강한 자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며, 서직수 역시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이었을 것이기에 화평은 진심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분은 다른 사람이 예쁘다고 한 내 사진도 나의 마음에는 들지 않을 수 있으니 서직수의 평은 진짜였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보탰다.

다양한 의견들이 이어졌다. 70대 후반의 관람객은 62세라는 나이는 인생을 정리하는 때이며, 따라서 초상화에 대한 평가보다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회한의 표현이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중년의 여성 관람객은 조선 후기에는 비판적인 그림 평을 함으로써 자신의 교양을 드러내고자 했다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다고 했다. 큐레이터와의 대화를 시작하면서부터 눈길이 갔던 외국인 관람객은 조선 최고 화가들의 그림에 먹으로 쓱쓱 지워가면서 남긴 화평을 가리키며 작가들의 위상이나 그림 주문에 들었을 돈 따위에는 연연하지 않는 그림 주인의 당당함을 말하기도 했다.

1796년에 그려진 조선 선비의 초상화를 감상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 ‘큐레이터와의 대화’의 매력이 아닐까. 조선시대 초상화 앞에서 영국 빅토리아시대의 도리언 그레이가 언급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테지만, 참여자들은 이 이외의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워했다. 또한 인생을 오래 살고 난 후에야 이해할 수 있는 감상을 나눌 수도 있었다.

큐레이터와의 대화에 어떤 책을 읽고 가야 하느냐는 문의 전화를 받을 때가 있다. 큐레이터와의 대화가 준비된 자료를 전달하는 강연이 아니라 상상력을 가미한 이야기를 함께 나뉘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기에 그냥 편안하게 오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글. 이혜경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학예연구사

‘진천 영수사 괘불’ 자세히 읽기

국립중앙박물관 2024 괘불전 <영산靈山의 모임, 진천 영수사 괘불>
2024.5.1.~10.13.



도1.
진천 영수사 괘불
명숙 등 4인
조선 1653년
삼베에 색
919x570.5cm
총북 진천 영수사
보물
©(사)정보문화유산연구원



도2. 사리불존자



도3. 아난존자(오른쪽 위), 대세지보살(왼쪽 아래), 사천왕(맨 왼쪽) 부분

옮겨진 괘불

1653년(효종 4) 여름, 161명의 정성을 모은 괘불 한 점이 완성되었다. 괘불 조성에 관한 일을 밝혀둔 화기畫記에는 불사佛事에 참여한 모든 이의 이름과 맡은 일, 후원한 물품 등이 적혀있지만 이 괘불이 어디에 걸렸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충북 진천군의 역사를 기록한 『상산지常山誌(1933년)』에 의하면 <진천 영수사 괘불(이하 영수사 괘불)>은 원래 인근의 백련암白蓮庵에 있던 것으로 사찰이 폐사되면서 영수사로 옮겨진 것이라고 한다. 당시 진천 지역의 사람들에게 <영수사 괘불>은 때때로 신비로운 일을 행하는 영험한 그림으로 여겨졌다. 마을에 가뭄이 들 때면 객사 문 밖에 높이 괘불을 걸고 승려들이 주문을 외우면 이에 감응해서 비를 내려주는 신이神異를 보였다. 또한, 만들어진 지 천년이나 되었는데도 방금 색칠한 듯 아름다운 그림으로 찬탄 받았다.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괘불이 머무는 곳은 달라졌지만, 괘불이 펼쳐지는 곳이라면 어디든 부처의 장엄한 세계가 펼쳐져 보는 이들의 마음을 끌었다.

영산靈山의 모임에 함께한 이들

<영수사 괘불>은 고대 인도 왕사성王舍城 영산에서 있었던 석가모니 불의 설법회 장면을 그린 것이다.㉑ 이와 같은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는 불교미술의 가장 인기 있는 소재 가운데 하나로, 조선시대 예배용 불화와 괘불로 많이 그려졌다. <영수사 괘불>에는 지금까지 전하

는 괘불 중 가장 많은 140명의 인물이 등장해 웅장한 구성을 보여 준다.

수많은 인물 가운데 화면 중앙의 높은 연화대좌에 앉은 석가모니불과 그를 향해 무릎을 꿇고 앉아 가르침을 청하는 사리불존자舍利弗尊者가 눈길을 끈다.㉒ 사리불존자는 석가모니불의 가장 뛰어난 제자로 『법화경法華經』에서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기를 거절하는 석가모니불에게 거듭 설법을 청하는 인물이다. <영수사 괘불>은 사리불존자를 화면 중앙에 비중 있게 배치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산의 모임에서 있었던 석가모니불과 사리불존자의 이야기를 상기시키는 듯하다. <영수사 괘불>은 보살이 아닌 승려의 모습을 한 청문자聽聞者(부처에게 법을 청하고 듣는 사람)가 처음 등장하는 불화로도 의미가 크다.

석가모니불과 사리불존자 주변으로 부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모여든 여러 보살, 제자와 나한, 사천왕 등 다양한 성중聖衆이 있다.㉓ 부처 가까이에는 관음보살과 세지보살을 비롯한 여러 보살과 계율을 가장 잘 지켰던 제자인 가섭, 부처의 말씀을 가장 잘 기억했던 아난 등이, 화면 위쪽으로는 여러 나한과 벽지불, 용왕과 용녀, 팔금강과 팔부중, 비천 등이 배치되어 『법화경』 서품序品에 묘사된 영산의 설법회 장면을 웅장하게 그렸다.

오색구름으로 구획한 화면 아래쪽에는 부처를 향해 무릎 꿇고 절하는 사람들, 악기를 연주하는 천녀天女들, 선도仙桃를 들고 있는 선인 등 다른 괘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



도5. 패불의 화기



도4. 부처를 예배하는 사람들(위), 악기를 연주하는 천녀(아래)

한다.⁵⁴ 이들은 다양한 지물, 자세, 표정 등으로 엄숙한 설법회 장면
에 생동감을 더한다. 18세기 이후 제작된 패불은 서 있는 모습의 부
처를 화면 가득 그리고 핵심적인 인물만 그리는 식으로 정형화되기
때문에 〈영수사 패불〉의 웅장한 구성은 더욱 특별하다.

161명의 정성을 모아서 만든 패불

세로 9미터, 가로 5미터가 넘는 거대한 그림인 〈영수사 패불〉 한 점
이 완성되는 데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었을까? 화면 가장 아래 화기
에는 패불 조성에 참여한 후원자들의 이름과 후원한 물품, 사찰에
서 불사를 담당했던 승려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⁵⁵ 후원자들이 제
공한 물품은 그림을 그리는 데 필요한 재료에서부터 불사 진행 경
비로 쓰였을 삼베, 식재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가장 값비싼 재
료인 황금을 시주했던 안대룡 부부를 시작으로 패불의 바탕천을
시주한 임만영 부부, 초록색 안료를 시주한 박꿔춘 부부, 점안식에
사용할 거울을 시주한 박춘립 부부, 소금을 시주한 주덕진 부부,
후추를 시주한 묘관 비구 등 모두 149명이 〈영수사 패불〉 한 점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탰다. 후원자 대부분은 지역의 평범한 사람들로
부부가 함께 참여한 경우가 많았다.

화기에 따르면 〈영수사 패불〉은 명옥^{明玉}, 소읍^{少楸}, 현옥^{玄旭}, 법능^{法能}
등 4명의 승려 화가가 그렸다. 이 중 명옥과 법능은 1658년 〈안
성 청룡사 패불〉을 함께 그렸고, 불화 제작 외에도 경전 판화를 새
기는 각수^{刻手}로 활동하거나 왕실 장례를 준비하는 데 화원으로
참여하는 등 뛰어난 역량을 가진 화승^{畫僧}이었다. 이 밖에도 패불
조성 과정을 관리하거나 모금을 담당했던 승려들까지 포함하면
모두 161명의 정성이 모여서 〈영수사 패불〉이 완성됐다.

371년 전 여름 어느 날,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영산의 세계를 펼
쳐 보였던 〈영수사 패불〉이 오는 10월 13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불
교회화실에서 관람객을 맞이한다. 이번 전시에서 간절한 바람을 담
아 패불을 완성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와 〈영수사 패불〉이 그리는 장
엄한 영산의 풍경을 만나보시길 바란다.

글. 양수미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학예연구사

전시 예고

2024
6.18
10.9

우리가 인디언으로 알던 사냥들

특별전 Special Exhibition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
SPECIAL EXHIBITION GALLERY, NATIONAL MUSEUM OF KOREA



Fritz Scholder (Luiseflo), Indian Power, 1972, Gift from Vicki and Kent Logan
to the Collection of the Denver Art Museum, 2016.125, © Estate of Fritz Scholder

CULTURES AND HISTORIES OF
INDIGENOUS PEOPLE IN
NORTH AMERICA

국립중앙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

DENVER
art
MUSEUM



국립김해박물관

가야로 온 세계유산 백제

국립김해박물관 특별전 <세계유산 백제, 세계유산 가야>

2024.5.2.~7.28.

국립김해박물관에서 개최하는 2024년 특별전 <세계유산 백제, 세계유산 가야>는 백제를 대표하는 보물로 잘 알려진 8종류의 문양전 <백제 명품, 백제 문양전>과 세계유산 백제의 역사유적지구 8곳을 담은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사진전>을 5월 2일부터 7월 28일까지 '세계유산 가야'의 본고장인 김해에서 선보이는 전시이다.



백제 문양으로 완성된 신기술융합콘텐츠 영상을 관람하는 관람객



<백제 명품, 백제 문양전>에서 전시 중인 벽돌

백제 문양전은 외국 전시에서 가장 많이 초대받은 우리나라 대표 전시품으로 2021년 국립부여박물관의 <산수문전>과 2023년 인천 공항박물관에서 <백제 명품, 백제 문양전>으로 선보인 바 있으나 가야에는 처음으로 온 백제 보물이다.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는 2015년 세계유산에 등재된 바 있다. 가야는 2023년 7곳의 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16번째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그 이름을 올렸다.

<세계유산 백제, 세계유산 가야>는 관람객들이 '가야'에서 백제 문화를 가벼운 마음으로 편안히 감상할 수 있는 전시다. 크게 3개 주제로, 1부에서는 백제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산수 무늬 벽돌을 이미지화 한 영상을 상영한다. 백제인이 품었던 산과 물, 구름 등 자연과 어우러지는 삶을 구현한 것이다. 산수 무늬 가운데서 있노라면 둥근 산 위 구름처럼 떠돌다 자연의 일부가 된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2부에서는 백제 명품 속에서 살아난 백제의 문양이라는 주제로 산수, 산수 봉황, 산수 도깨비, 연꽃 도깨비, 연꽃, 연꽃구름, 용, 봉황 무늬 벽돌의 모티프를 신기술 융합 콘텐츠에 녹였다. 백제인이 상상한 동물들이 인간을 보호해 주는 듯한 이미지를 표현하며 벽돌들이 모이면 또 하나의 십자형 꽃잎이 되는 모습을 영상으로 연출하였다. 관람객들의 눈높이에 맞춰, 문양전 영상을 감상한 뒤에는 실제 유물 8점을 볼 수 있게 했다.

부여 외리에서 발견된 무늬 벽돌은 8종류이다. 문양의 조합과 배치로 볼 때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산수를 주제로 한 무늬는 벽돌의 방형을 그대로 두고 그 속에 무늬를 배치하는 형태로 모서리를 연결하면 하나의 산봉우리로 연결된다.

'산수 무늬'는 삼산의 산악을 중심에 두고 아래쪽에는 물을 표현하고 위쪽으로는 떠다니는 구름 무늬를 표현하였다. 양쪽으로는 기암괴석을 놓아 산수 중심의 원근법이 보이는 한 폭의 산수화와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산수 봉황 무늬'는 구름의 신비로운 기운으로 둘러싸인 봉황을 형상화한 것으로, 산 정상에 봉황이 앉은 모습은 백제금동대향로를 연상시킨다. '산수 도깨비'는 산수를 배경으로 폭포수와 구름 위에 우뚝 서서 입을 크게 벌리며 눈을 부릅뜨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연꽃 도깨비'는 연꽃 모양의 대좌 위에 산수 도깨비와 같은 자세로 서 있다.

다음으로 방형계통의 벽돌은 방형 안에 둥근 구슬 무늬를 두고 그 안에 무늬를 배치한다. 이 벽돌의 모서리를 연결하면 네 모퉁이가 하나의 꽃잎을 이룬다. 대표적으로 '연꽃구름 무늬'는 작은 연꽃 무늬의 원심을 만들고 이를 중심으로 8개의 구름문이 시계 방향으로 휘돌아치는 역동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연꽃 무늬'는 연꽃이 활짝 피어 난 모습을 연상케 하며 원 중심의 씨방에 10개의 꽃잎을 그려 넣었다. '용 무늬'는 도깨비의 얼굴과 닮은 눈이 부리부리한 형태로 승천하고자 하는 용의 모습, '봉황 무늬'는 우아한 자태로 날개가 구름 형태로 펼쳐진 봉황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이 8종류의 벽돌 문양은 6세기 말 7세기 절정기 백제 예술의 정수를 보여준다.

3부에서는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8곳을 사진으로 소개한다. 백제의 문화 역량을 드러내는 이 유적들에는 백제인이 활발하게 활동한 시기의 도시 계획 원칙, 건축 기술, 예술, 종교 등이 녹아 들어있다. 국가 재정비를 위해 천도한 공주 공산성, 국제적 문화 교류를 잘 보여준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백제의 새로운 출발이 된 부여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 새 수도를 지키는 외곽성인 부여 나성, 왕가의 안식처인 부여 왕릉원인 능산리고분군, 백제인의 소중한 정신적 장소인 부여 정림사지, 백제가 마지막으로 힘찬 도약을 꿈꾸며 건설한 익산 왕궁리유적, 깊어진 종교적 신앙을 완성한 익산 미륵사지를 사진에 담았다. 또한, 백제의 역사 유적과 어우러지는 4계절의 자연 풍경을 영상으로 담아 가야에서 유유자적하게 즐길 수 있게 구성하였다.

이번 전시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야를 축하하러 온 <세계유산 백제>전시와 더불어 국립김해박물관이 새롭게 개편한 <세계유산 가야>의 상설전시를 함께 관람하도록 유도하여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야고분군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하였다. 이로써 세계유산 가야가 이룩한 고대 문화 복원과 향유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가야는 각 지역과 교류하며 삼국 사이에서 당당하게 성장·발전하였다. 국립김해박물관은 이같은 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특성과 주제로 삼아, 이를 밝히고 복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글. 이춘선 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사



국립전주박물관

금산사의 정신, 미륵의 마음을 담다

국립전주박물관 · 금산사 특별전 <미륵의 마음, 모악산 금산사>

2024.5.3.~8.18.

1,400여 년의 긴 시간 동안 같은 자리에서 한결같이 희망의 등불을 밝혀주는 곳이 있다. 그 곳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명산, 모악산에 자리 잡은 금산사이다. 생명을 향한 자비심에서 일어난 진표율사의 미륵신앙은 금산사를 희망의 상징으로 만들어 주었다.

도1. 프롤로그 '모악에 가다'

국립전주박물관과 금산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하여 미륵신앙의 성지로서 지역민을 위로하고 희망의 안식처가 되어 준 금산사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특별전 <미륵의 마음, 모악산 금산사>를 열고 있다. 이번 전시는 금산사가 걸어온 역사와 추구해온 가치를 살펴봄으로써 힘차게 시작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여정에 금산사의 희망의 빛이 밝게 비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모악에 가다

전북특별자치도에는 지평선을 볼 수 있는 평야가 자리하고 있다. 드넓은 평야 가운데에는 우뚝 솟아 있는 큰 산, 모악산이 있다. 모악산에서 시작된 물줄기는 넓은 평야로 흘러 땅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다. 모악산은 예부터 사람들에게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고 의지가 되는 산이었다. 1,400여 년 전 모악산에 금산사가 세워졌다.

프롤로그에서는 금산사 옛 금강문에 걸었던 모악산 금산사 편액을 시작으로 금산사가 그려진 금구현 옛 지도와 모악산에서 올라 바라본 모악산과 김제의 풍경을 그린 '모악별곡' 대형 산수화를 소개한다. 김제 출신 김범석 작가의 '모악별곡' 한 가운데에 그려진 금산사는 어머니의 대지에 피어난 연꽃처럼 우리에게 늘 희망이 되어주었던 금산사의 모습을 나타낸 듯하다.^{도1}

대자^{大慈}의 땅, 미륵을 만나다

석가모니가 구제하지 못한 미래의 중생들까지 모두 구원하려는 자비의 존재가 바로 미륵이다. 1부에서는 자비로운 어머니 대자의 땅에서 미륵신앙의 중심 사찰로 굳게 자리매김한 금산사를 소개한다. 금산사를 미륵도량으로 만든 진표율사(8세기 활동)의 전기를 담은 책과 불교의 가르침을 담은 경전, 그리고 여러 전기를 토대로 구성한 애니메이션 영상에서는 참회와 수행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도2. 금산사 오층석탑 출토 사리장엄구



도3. 2부 '용화의 집, 금산을 이루다' 전경



도4. 조각가 김복진이 석고로 만든 불상



도5. 미륵전 미륵장륙상 3D 프린팅 작품

희망을 심어주고자 했던 진표스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이후 후백제의 중심 사찰이었던 금산사는 고려시대 문벌귀족 이자연의 아들 혜덕왕사 소현(1038-1096)이 주지로 부임하면서 호남의 중심 사찰로 자리매김하였다. 1971년 오층석탑을 해체·보수하면서 발견된 사리장엄구^{도2}와 중창기에서는 부처님을 모신 석탑을 세우며 불심을 다지고 희망을 꿈꾸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용화^{龍華}의 집, 금산을 이루다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조선은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 스님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나라를 지키고자 노력하였다. 의승군들의 활약으로 침체되었던 불교계의 위상은 다시 높아졌지만, 전쟁으로 금산사를 비롯한 많은 사찰이 피해를 입었다. 금산사는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미륵전과 미륵장륙상을 비롯하여 여러 건물을 다시 세워 대가람을 이루었다. 2부에서는 불굴의 의지와 강한 실천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용화의 집을 이룬 금산사의 모습을 소개한다.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금산사 출신 의승장 뇌묵대사 처영(16~17세기 활동)의 활약은 금산

사의 호국 정신을 보여준다. 그리고 금산사 대장전에 모셨던 동국사 석가여래삼존상에서 발견된 발원문과 1,237명의 이름이 적힌 시주질은 당시 호남 최고의 사찰, 금산사의 위상을 보여준다.^{도3}

미륵의 마음, 세상을 보다

미륵신앙의 성지로서 금산사의 상징은 미륵전과 방등계단^{方等戒壇}이다. 3층의 미륵전과 높이 11m의 미륵장륙상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미륵 부처님이 세상에 내려와 설법하는 모습을 상징한다. 3부에서는 모두에게 평등한 자비심을 추구한 미륵의 마음이 담긴 금산사 미륵전과 미륵장륙상을 소개한다.

진표율사 때 처음 만든 것으로 전해지는 미륵전과 미륵장륙상이 전란으로 인해 소실된 후, 같은 자리에 전각과 불상을 다시 세웠다. 1935년 미륵장륙상이 화마로 인해 소실되자 불상 제작자를 선발하기 위한 입찰을 시행했다. 입찰에 참여한 조각가 김복진(1901-1940)과 전통적인 불상을 만들어온 금용 일섭(1900-1975)은 심사를 위해 1m 크기의 불상을 제작하였다. 당시 새로운 재료였던 석고를 이용하여 사실적이면서 신체의 비례를 강조한 김복진의 불상이 선택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미륵장륙상이 만들어졌다. 전시에서는 김복진이 입찰을 위해 제작한 불상^{도4}과 함께 현재 미륵전과 미륵장륙삼존상을 3D 모델링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미륵장륙상의 얼굴을 우리의 시선에서 볼 수 있게 장준호 작가가 재탄생시킨 3D 프린팅 작품^{도5}도 선보인다.

이 세상의 도술천

진표율사의 자비심에서 일어난 금산사의 미륵신앙은 지금도 온 세상과 사람을 위한 수행과 실천으로 미륵의 가르침을 이어가고 있다. 중생을 구제하고 인류의 행복을 위한 길을 걸어오신 태공당 월주 큰스님(1935-2021)의 가르침은 미륵신앙의 성지로서 금산사가 추구해온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에필로그에서는 미륵의 세상, 이 세상에 구현된 도술천으로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금산사의 모습과 금산사를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선보인다.

그 밖에 전시 기간 중 누구나 현장에서 온라인 활동지 풀기와 함께 소망을 작성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이 마련되어있다. 이 외에도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큐레이터와의 대화가 운영되고 있으며, 6월 15일부터 매주 토요일에는 금산사 가람 만들기 체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찬란했던 순간도, 어려움과 슬픔의 시간에도 한결같이 자리를 지켜온 금산사는 지금도 우리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주고 있다. 금산사가 면면히 이어온 가치와 소중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이 전시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글. 강소희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사



국립대구박물관

우리 신발의 역사와 문화를 다룬 최초의 전시

국립대구박물관 개관 30주년 특별전 <한국의 신발, 발과 신>
2024.5.14.~9.22.

국립대구박물관은 지난 5월 14일부터 기획전시실에서 <한국의 신발, 발과 신> 특별전을 선보이고 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복식 문화와 함께 우리나라 신발의 역사와 문화를 다룬 전시는 이번이 처음이다. 발의 진화부터 짚신과 나막신, 금동신발과 왕실의 신발, 신발이 있는 풍속화와 초상화까지 신발 관련 자료를 한자리에 모았다. 이번 전시에는 무령왕비 금동신발, 식리총 금동신발, 원이 엄마 한글 편지와 미투리, 영친왕비 청석, 안동 태사묘 복식 문화유산 일괄, 성철스님 고무신 등 316건 531점을 선보인다.



사람은 대지를 딛고 일어서 신발을 신고 기후를 극복했다. 신발은 발을 보호하는 기능을 넘어 사회와 문화를 담고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었다. '신발'은 사람이 땅을 딛고 서거나, 걷고 뛰기 위해서 발에 신었던 물건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다. 신발은 다양한 형태와 재료로 만들었으며, 제작 방법도 다양했다.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신분에 따라 각기 다른 신발을 신기도 했다. 이처럼 발을 보호하기 위한 신발은 점차 사회문화적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 전시는 방대한 역사를 지니는 우리나라 신발과 복식 문화에 주목해 두 개의 전시실에서 모두 일곱 가지 주제로 구성했다.

1실에서는 발의 진화부터 재료, 신분, 기후 등 신발의 역사와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다룬다. 전시의 시작인 **1부 발의 진화, 신발의 탄생**에서는 두 발로 선 인류의 진화 모습을 영상 및 이미지와 함께 구성하여 시작부터 몰입할 수 있게 꾸몄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신발과 신발의 재료, 신발 제작과 관련된 공간을 연출했다. **2부 짚과 풀을 엮어 만든 신발**에서는 삼한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흔하게 신었던 짚신과 미투리를 살펴보았다. 짚으로 만든 짚신과 마로 만든 미투리는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를 엮은 것이다. 상주가 신었던 엄짚신이나 어린이 미투리,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담은 미투리 등 다양한 짚신과 미투리를 전시했다. 머리카락으로 엮어 만든 안동 원이 엄마 미투리는 신발이 단순히 발을 보호하는 도구가 아닌 애절한 마음과 소망을 담은 물건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3부 신분마다 달랐던 신발에서는 신분제 사회에서 권력을 나타내기도 했던 신발 모습을 조망했다. 의례용 신발인 **석뵐**은 왕의 구장복, 왕비의 적의와 함께 전시하였고, 신하의 신발인 발목 높은 가죽신 **화궐**는 남구만 초상(보물), 이하응 초상(보물)와 함께 구성하여 관람객들의 이해를 도왔다. **화궐**가 포함된 안동 태사묘 삼공신 문화유산 일괄품(보물)은 보존 처리 이후 첫 공개이다. **4부 기후와 신발**에서는 기후를 극복하였던 신발을 소개한다. 비오는 날 신었던 삼국시대 나막신부터 조선시대 나막신, 기름 먹인 가죽신인 징신, 눈오는 날 신는 설피와 둥구니신, 그리고 돌이 많고 비가 많이 오는 제주도의 11자형 나막신도 함께 전시하였다.

2실에서는 사람의 삶과 죽음 속에서 함께하는 신발 이야기에 주목했다. **5부 패션의 완성, 신발**에서는 신발을 신고 패션을 완성하는 데 숨은 공신인 '버선'과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발을 신었던 날인 혼넛날의 복식을 전시했다. 궁중 여인들의 화려한 활옷과 꽃신은 혼넛날 평민에게도 허용되었는데 이러한 관습을 섭성(攝盛)이라 했다.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완성하는 신발은 복식 문화의 화룡점정이라 할 수 있다. **6부 죽은 이를 위한 신발**에서는 무덤에 넣은 부장품으로서의 신발의 의미와 죽은 이에 대한 추모, 내세관에 대해 살펴보았다. 조선시대 장례용 신발인 습신과 삼국시대 금동신발, 고구려 무덤 벽화에 나온 신발을 소개하였다. 특히 집안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하는 고구려 금동신발과 무령왕비·식리총·고창 봉



덕리·나주 정촌의 금동신발 등 삼국시대를 대표하는 금동신발을 선보인다. 금속 공예 기술의 정수와 함께 내세관을 엿볼 수 있다.

7부 신발, 조선에서 현대까지는 우리에게 신발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는 자리이다. 대구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한복 디자이너 이영희의 기증품, 황해봉 장인(국가무형유산 화해장), 안해표 장인(부산 무형유산 화해장)의 작품 등을 벽면 가득 전시하여 전통 신발 중 **혜궐**의 아름다움을 극대화시켜 연출했다. 그리고 20세기 초 새로운 소재와 함께 반세기 가까이 유행했던 추억의 고무신과 관련한 이야기도 눈여겨볼 만 하다. 또한 성철스님 고무신, 엄홍길 등산화, 서장훈 농구화 등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신었던 신발을 조명하면서 직업과 기능에 따라 다른 오늘날의 신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였다.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6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에 종이 신발 만들기 가능한 '신나는 박물관'을, 7월 27일(금)에는 '벗짚 생활용품 만들기'를 운영한다. 또한 8월 2일부터 8월 16일까지 매주 금요일 화해장 시연 및 '꽃신 만들기'를 진행한다.

글. 고영민 국립대구박물관 학예연구사

특별공개 <다시 찾은 신라의 빛-선림원 터 금동보살입상> 연계 국제학술심포지엄

통일신라 금동보살입상, 다시 빛을 보다

국립춘천박물관은 지난 5월 14일, 특별공개 <다시 찾은 신라의 빛-선림원 터 금동보살입상>과 연계하여 국립춘천박물관 강당에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국제학술심포지엄은 선림원 터 금동보살입상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첫 학술행사였다.

선림원 터 금동보살입상
통일신라
높이 66.7cm
국립춘천박물관
춘천 130544



특별공개 <다시 찾은 신라의 빛-선림원 터 금동보살입상>과 연계하여 이 금동보살입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국제학술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이 상은 현존하는 사례 중 드문 원형의 보살상이자, 출토지가 명확한 통일신라의 소형 금동보살상 가운데 가장 크다는 점에서 특별공개 이전부터 언론과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번 국제학술심포지엄은 『삼국유사』에 나오는 석굴암 창건 기록을 비판적 시각으로 고찰하여 석굴암 창건 연대를 비롯해 통일신라 불교조각의 편년에 문제점을 제기한 민병찬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미술사와 보존과학 분야의 전문가 5명의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이어졌다.

국립춘천박물관의 유수란 학예연구사는 기록과 지금까지의 발굴조사를 바탕으로 기존에 연구되었던 양양 선림원 터 건물지의 구조와 성격을 재검토했다. 특히 조사당 터로 추정되었던 건물의 평면을 검토하여 선종계 사찰의 유사한 건물지와 함께 살펴봐야 함을 지적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신소연 학예연구관은 선림원 터 금동보살입상의 존명과 조성 연대를 추정하고, 경주 월지 출토 불상의 봉안 방식과 비교하여 불감으로 봉안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오사카대학의 후지오카 유타카(藤岡穰) 교수는 광배와 영락을 중심으로 중국당대 불상과 일본 나라시대 8세기 중후반 작례와 비교하여 동아시아의 넓은 맥락에서 선림원 터 금동보살입상을 고찰하였다.

이번 국제학술심포지엄은 미술사뿐 아니라 보존과학 관점에서 보살상을 고찰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깊었다. 선림원 터 금동보살입상의 보존처리를 담당했던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의 이재성 학예연구사는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보살상의 제작 기법과 부분별 재질 등에 대해 살펴보고, 보살상 내외부에서 확인된 종이 편을 분석하여 절대연대가 7~9세기임을 밝혔다. 국립중앙박물관의 박학수 학예연구관은 통일신라 금동불상의 CT(컴퓨터 단층촬영) 조사 결과와 선림원 터 금동보살입상의 CT 조사 결과를 비교 고찰하였다. 향후 불상 양식 연구와 CT 조사가 연계된다면 금동상의 주조 변화를 추정하는 새로운 지표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된다.

종합토론에는 좌장 민병찬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을 비롯한 발표자 5명과 강삼혜 학예연구관(국립경주박물관), 권강미 학예연구실장(국립제주박물관), 김지호 학예연구사(국립중앙박물관), 손영문 전문위원(문화유산청), 최선아 교수(명지대학교)가 참여했다. 조성연대를 비롯해 제작자, 봉안 방식, 상과 대좌의 구체적인 결합 방식, 불신(佛身)과 장신구 분리 개념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남아 있는 조각 편 가운데 광배나 영락, 보관 등과 단면이 다른 편이 확인되어 보살의 지물(持物)이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이 보살상은 영락 장식과 금박지의 사용 등 통일신라 금동불 연구에 새로운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국립춘천박물관은 이번 국제학술심포지엄 결과를 바탕으로 금동보살입상의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선림원 터 금동보살입상을 비롯해 통일신라 금동상에 대한 다양한 학문간 연계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연구가 더 많이 발표되기를 기대한다.

글. 유수란 국립춘천박물관 학예연구사

현장을 연구하다, 박물관 연구 활동의 새로운 가능성

제26회 동원학술대회

국립대구박물관은 사단법인 동원고고미술연구소와 공동으로 지난 5월 24일~25일 이틀에 걸쳐 국립대구박물관 강당에서 제26회 동원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에는 국립중앙박물관과 13개 소속박물관의 학예연구직 1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12개의 주제발표와 토론을 펼쳤다.



제26회 동원학술대회 참석자 단체 사진

동원고고미술연구소는 평생 모은 1만여 점의 유물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 동원東垣 이흥근李洪根(1900~1980)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 유족들이 국립박물관에 별도의 기금을 출연하면서 설립되었다. 올해로 26회를 맞이한 동원학술대회는 국립박물관 학예연구직의 연구 역량 제고 및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박물관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동원학술대회 첫째 날인 24일에는「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광개토왕비 원석탁본에 대하여」(류정환, 국립중앙박물관)를 시작으로 「충주 발견 행군만호방자호지인(行軍萬戶傍字号之印) 재고」(이태희, 국립중앙박물관), 「지역 연구를 위한 고지도, 지리지 활용 연구-박물관 전시를 중심으로」(정대영, 국립대구박물관), 「백제금동대향로의 도상 구성과 의미 고찰」(윤종균, 국립중앙박물관), 「은혜사 백홍암 불단과 제작자 연구」(한길중, 국립대구박물관), 「〈용주사 삼세불회도〉의 조성연대와 제작자 재검토-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를 중심으로」(유경희, 국립중앙박물관), 「동원 이흥근 선생 기증 활옷의 보존 연구」(박승원, 국립전주박물관), 「박물관의 교육적 역할 변화 연구-국립중앙박물관 교육 20년(2005~2024년)을 중심으로」(박연희, 국립춘천박물관) 등 8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둘째 날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장애인 관람객 전시환경 개선과 가이드라인의 활용」(정현,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박물관 디지털 접근성의 현황과 과제-〈이용 장벽 없는 스마트 전시관〉 서비스를 중심으로」(백승미, 국립중앙박물관), 「모두를 위한 박물관을 향한 모색-최근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에서의 시도와 성과」(이현숙,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박물관 특별전 리뷰의 추진현황과 과제」(권혁산, 국립중앙박물관) 등 4개 주제의 발표와 토론을 이어나갔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박물관 소장품의 성격을 새롭게 고찰하는 연구뿐만 아니라 박물관 업무와 연계한 주제의 발표가 많아서 박물관 연구 활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현장형 연구를 토대로 박물관의 현재를 점검하고 박물관이 대면할 새로운 환경에 대한 준비와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틀에 걸친 동원학술대회는 “모든 박물관 직원들이 박물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의 전문가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는 이영훈 동원고고미술연구소 이사장의 폐회사로 마쳤다.

글. 황은순 국립중앙박물관 미래전략담당관 학예연구관

애뜻한 마음에 탄탄한 교육으로 응원하다

〈2024년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 기초 연수〉에 참여한
안정아 김포다도박물관 학예국장, 김민지 통도사성보박물관 학예연구사



Q 전국 각지 다종다양한 박물관에서 연수에 참여했는데요, 두 분의 소속 박물관을 소개해 주세요.

안정아 제가 학예국장으로 있는 김포다도박물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차^茶 전문 박물관입니다. 김포에 다도박물관이 있다는 것이 낯설 텐데요, 현존 최고^{最古} 전문 다서인 『다부^{茶譜}』의 저자 한재 이목(1471~1498) 선생의 본가와 위패가 모셔진 한재당이 김포에 있기 때문입니다. 도학적 유학을 실천한 차인으로 알려진 이목 선생의 뜻을 받들어 설립된 박물관인 만큼, 한국의 차 문화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민지 통도사성보박물관은 646년 자장율사가 창건한 유서 깊은 사찰인 통도사에 있는 불교전문박물관입니다. 일찍이 문화유산의 귀중한 가치를 인정한 스님들에 의해 전시 및 보존되어 온 4만여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풍부



지난해 전국 913개 박물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장품 보존 현황 조사에서는 ‘보존 관련 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희망하는 답변이 77.8%로 높게 나왔다.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고자 국립중앙박물관은 국립·공립·사립·대학박물관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소장품의 안전한 보존과 관리에 관한 기초 연수를 3일에 걸쳐 진행하였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두 명의 박물관 전문가(종사자)를 『박물관신문』이 만났다.

한 불교회화를 보유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찰박물관으로서 전시 및 연구뿐만 아니라 불교미술사학회, 문화센터를 운영하며 불교문화의 우수성과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국립중앙박물관의 ‘보존과학 기초 연수’에 지원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안정아 20년 이상 박물관에서 근무하며 깨달은 게 있지요. 박물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통 계승의 밑바탕인 소장품’이란 사실어요. 아무리 경력이 쌓여도 여전히, 비바람이 불고 천둥이 칠 때면 가장 먼저 수장고가 걱정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학예연구사라면 다들 그럴 겁니다. 소장품 관리는 박물관 사람들에게 숙명이 아닐까요?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 기초 연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꼭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김민지 저는 과거에 다른 기회로 ‘보존과학 기초 연수’에 참가한 적이 있는데요.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향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연수에 참여했던 학예연구사들과 교류했던 점은 향후 큰 자산이 됐어요. 시간이 흘러 통도사성보박물관에 근무하면서 보존과학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활용하려던 차에 한국박물관협회 누리집에 게시된 연수 소식을 보고 신청했습니다.

Q 두 분 모두 기다려왔던 교육이었네요. 이번엔 더욱 관심 깊게 들은 내용이 있나요?

안정아 김포다도박물관 소장품의 70% 이상이 자기류여서 아무래도 도자 복원 교육을 더욱 집중해서 들었지요. 자기류는 모양에 따라 쉬운 복원 처리가 있는가 하면, 아주 고민스러운 부분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기초 연수에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신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 이해순 학예연구사님의 도움으로 자기류 복원 처리 과정에 관한 고민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전과 달라진 복원 재료나 방법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서 뜻깊었습니다.

김민지 사립박물관의 여건상 당장 해결하기 힘든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는데요. 시의적절한 방안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자 하지만, 여의찮은 경우가 많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최신 이론과 방법을 알게 되어 많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어요. 국립중앙박물관과 소통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생긴 것 같아요. 보존과학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전문



“아무리 경력이 쌓여도 여전히, 비바람이 불고 천둥이 칠 때면 가장 먼저 수장고가 걱정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학예연구사라면 다들 그럴 겁니다. 소장품 관리는 박물관 사람들에게 숙명이 아닐까요?”

안정아 김포다도박물관 학예국장

“국립중앙박물관과 소통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생긴 것 같아요. 보존과학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전문가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김민지 통도사성보박물관 학예연구사



가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Q 박물관마다 여건이 다를 텐데요, 소속 박물관의 보존·관리 수준과 현황은 어떤가요?

안정아 사립박물관의 보존과학 수준을 언급하는 건 어렵지만 1·2 전시설 내 수장고와 외부 수장고 두 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에 관리되고 있는 소장품들이 기후변화에 따라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한 간격으로 환경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날씨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꼭 확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더욱이 기초 연수에 참여해 단기간에 새로운 정보를 얻고 이를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최신 이론과 연구를 가진 국립중앙박물관을 허브 삼아 전국 박물관이 연결되면 전체적으로 보존과학의 수준이 조금씩 올라가지 않을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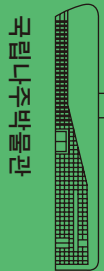
김민지 통도사성보박물관은 7개의 수장고와 5개의 전시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보존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온·습도와 실내 공기질 및 생물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소장품의 보존처리는 상태 점검 후 외부 용역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비지정문화재의 관리 방안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Q ‘보존과학 기초 연수’에서 배운 것을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할지 궁금합니다.

안정아 동료 학예연구사들에게 기초 연수 내용을 상세히 전달 중입니다. “우리는 보존처리할 일이 없어. 그냥 뒤도 관참아”가 아닌 “언제 어느 때 발생할지 모르는 사태에 항상 대비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자”라고 동기부여도 하고요. 박물관 교류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더욱이 소장품 보존처리에 관심을 두고 연구할 예정입니다.

김민지 올해 개관 25주년을 맞은 통도사성보박물관은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한층 더 도약하기 위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초 연수에서 배운 내용을 박물관 운영 전반에 적용하여 문화유산 보존에 만전을 기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2



시간과의
대화

길게 뻗은 영산강과 드넓은 나주평야 사이로 웅관과 보물을 품고 있는 고분이 흩어져 있다. 2천 년 전부터 이 땅에 존재하던 나주 반남 고분군이다. 거대한 고분과 그 속에 담긴 보물에 길게 뻗 나주의 이야기가 여행자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나주의 곳곳을 거닐며 아득히 오래된 시간에 말을 걸어본다.

대화

시간



1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상서로운 동물
모양 토기
삼국
나주 11979



금성관



자동차 5분 1.6km

2



나주 신촌리 금동관
삼국
국보
본관 5860



도보 1분 157m

3



목사내아



자동차 33분 23km

4



불회사

나주 서성문 안 석등
고려
보물
본관 12805



자동차 40분 32km

5



국립나주박물관



나주 반남 고분군 ©나주시

2천 년을 거슬러

나주역에서 820번 지방도를 타고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를 지나면 서서히 과거와 마주하게 된다. 하루를 열심히 살아내는 사람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자동차 소음들이 완전히 자취를 감추자, 차창의 풍경은 어느새 2천 년 전 모습으로 가득하다.

지평선이 보일락 말락 할 만큼 쪽 뻗은 길 위로 우뚝 솟은 반남 고분들이 우리를 먼 시간 속으로 이끈다. 4~5세기 무렵 덕산리, 신촌리, 대안리 일대에 형성된 무덤들이 더러는 원형 그대로, 더러는 윗부분이 잘려 독특한 피라미드 형태를 하고서 태연하게 21세기 여행자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고분이 품고 있던 보물들은 또 어떤가. 거대한 독널무덤과 금동관은 마한시대의 삶과 죽음을 온전히 증거해주었고, 돌방무덤과 금동신발은 백제의 삶과 문화교류까지 짐작케 해주었다.

인적이 드문 곳에 멈춰 반남 고분군을 천천히 바라본다. 거대한 둔덕에서 피어오르는 장엄한 공기의 흐름이 고분이 지나온 시간의 풍경들을 쓴살같이 펼쳐낸다. 떠난 이를 애도

하는 사람들, 고분 주인의 업적을 기리며 존경심을 표하는 사람들, 커다란 웅관을 힘겹게 안치하는 사람들, 각종 보물과 생활도구 등 꺼문 거리를 정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생생히 스쳐간다. 죽은 자를 향한 슬픔과 고통을 고분 안에 온전히 남겨 둔 나주 사람들. 그들은 문득 그리움이 밀려오거나 삶이 팍팍할 때 고분을 바라보며 위안을 얻었으리라.

여행의 목적은 여러 갈래다. 그 하나가 복잡다단한 현실 속 텅빈 마음을 치유하고 삶의 용기를 얻고 싶은 것이었다면, 출발점은 바로 이곳이다. 곁에서 잠시 쉬어가는 것만으로도 무거운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나주의 초여름을 만끽하며 또 다른 시간 속으로 떠나본다.

초여름의 역사 산책

나주의 6월은 영산강의 푸르름과 나주평야의 초록빛이 가장 선명한 시절이다. 파란 하늘에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을 따라 가다보면 2천 년을 뛰어넘는 여행도 한나절 산책처럼 가볍하다.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 1929년 10월 광주에서 나주로 가는 통학 열차에서 한국과

일본 학생이 충돌한다. 이를 계기로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들불처럼 퍼져나갔다. 나주 사람들은 3·1운동 이후 일어난 학생운동 중 가장 큰 규모였던 광주학생항일운동이 남긴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 항일운동의 진원지인 나주역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그 옆에 나주학생 독립운동기념관을 세웠다.

기념관에서는 일본의 전라도 지역 수탈과 항일운동, 광주학생항일운동의 전개 과정을 되새겨 볼 수 있다. 1960년대 역사 풍경을 완벽히 재현해 나주의 대표 사진 명소로 잘 알려진 구 나주역도 잊지 말고 꼭 둘러보자. 광주학생항일운동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와 나주역을 중심으로 펼쳐진 당시 독립운동의 열기를 느껴보고 싶다면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을 꼭 방문해 보길 바란다.

금성관 | 금성관은 조선시대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와 궁궐을 상징하는 궐패를 모시고 예를 올리던 의례 공간이다.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이던 김천일 선생의 출병식장과 명성황후의 빈소로 활용되기도 한 나주의 역사적 명소다. 금성관 관람은 정문인 망화루에서 시작된다. 망화루에 올라 나주 구도심의 풍경과 금성

관 풍경을 한눈에 내려다보고, 3개의 문을 지나 본채를 둘러본 후, 본채 뒤에 우뚝 선 600년 넘은 은행나무의 위용을 감상해 보길 추천한다. 색다른 추억을 원한다면, 금성관 근처 나주 곶탕거리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한 바퀴 둘러보며 금성관의 야경을 감상해도 좋겠다.

목사내아 | 금성관 옆에는 나주목에 파견된 지방 관리자인 목사와 가족의 생활공간 목사내아가 있다.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대문을 열면 ㄷ자 모양의 본채와 500년 묵은 팽나무가 관람객을 반긴다. 아담하고 소박한 본채와 문간채의 모습도 훌륭하지만, 독특한 팽나무의 모습에 감탄하게 된다. 1980년 벼락을 맞아 두 쪽으로 갈라졌지만, 기적처럼 살아났기 때문. 이후 팽나무에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현재 목사내아는 일반 관람뿐만 아니라 전통 숙소 체험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으니 여건이 된다면 목사내아에서 하룻밤 머물며 나주의 구도심을 여행해 보길 바란다.

불회사 | 덕룡산 중턱에 오르면 호젓한 사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나주시



금성관 ©나주시



목사내아

찰 불회사가 모습을 드러낸다. 힐링하기 좋은 템플스테이로도 잘 알려질 만큼 소박한 멋과 운치가 돋보이는 사찰이다. 불회사는 4세기경 백제 침류왕 때 백제에 불교를 설파한 인도의 승려 마라난타(摩羅難陀)가 창건했다. 오래된 역사만큼 근현대까지 전란과 화재로 여러 번 소실되고 중건되기를 반복했지만, 다행스럽게도 대웅전은 조선 후기의 섬세하고 화려한 장식미를 잘 보존해 보물로 지정됐다. 대웅전과 함께 꼭 봐야할 문화유산이 있다. 바로 대웅전 안에 자리를 잡은 건칠비로자나불좌상(乾漆毘盧遮那佛坐像)이다. 고려 후기에서 조선 초기까지 종이로 만들어진 희귀한 불상이 독특한 아름다움을 뽐낸다.

영산강 유역 고대문화의 모든 것

다시, 반남 고분군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이곳은 나주 여행의 출발점이기도 하지만 종착점이기도 하다. 국립나주박물관이 자리하기 때문이다. 반남 고분군 40기 중 약 9개 고분이 박

물관 밖을 둘러싸고 있고, 박물관 안에서는 고분에서 출토된 문화유산을 전시하고 있다.

멀리서 바라본 반남 고분군이 위로를 전해준다면, 국립나주박물관은 그 자체로 휴식을 선사한다. 나주의 독특한 토착 문화, 그중에서도 장례 문화를 연구하는 만큼 도심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자리해 고즈넉하고 자연친화적인 분위기가 감도는 데다, 박물관을 성벽처럼 둘러싼 고분이 마치 요새에 들어온 듯 안락한 느낌을 준다. 방문만으로도 특별한 여행지에 온 듯한 기분인데, 관람하면 만족감이 더욱 커질 듯 하다.

국립나주박물관은 2013년 개관 이후부터 영산강 유역에 남은 선사와 고대문화를 보존·연구·전시·교육하는 나주 유일의 고고학 전문 박물관이다. 백미는 개방형 수장고인데, 호남지역에서 발굴된 매장 문화유산을 보관하는 수장고 역할도 겸하는 국립나주박물관은 총 여섯 개의 수장고를 운영 중이다. 그중 두 개의 수장고에 대형 관람 창을 설치해 관람객들이 수장고 내부를 직접 감상할 수 있도록

📍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전남 나주시 죽림길 26
운영시간: 09:00~18:00(매주 월요일 휴무)
입장료: 무료

📍 **금성관**
전남 나주시 금성관길 8
운영시간: 09:00~19:00
입장료: 무료

📍 **목사내아**
전남 나주시 금성관길 13-8
운영시간: 10:00~18:00
입장료: 무료
홈페이지: naju.go.kr/moksanaea

📍 **불회사**
전남 나주시 다도면 다도로 1224-142
운영시간: 연중무휴
입장료: 무료

📍 **국립나주박물관**
전남 나주시 반남면 고분로 747
운영시간: 09:00~18:00(매주 월요일 휴무)
입장료: 무료
홈페이지: naju.museum.go.kr

했다. 박물관은 때때로 개방형 수장고에서 관람객에게 문화유산 복원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박물관 관람 예정이라면 국립나주박물관 누리집에서 행사 정보를 사전에 확인 후 방문하길 추천한다.

한편, 국립나주박물관은 개관 후 10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상설전시실을 새롭게 개관했다. 장대하고도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독널무덤과 보물을 전시한 상설전시실에는 80여 점의 대형 독널무덤과 미디어아트가 어우러져 있다. 국립나주박물관의 둥근 건축 벽면을 모티브로 한 44m의 대형 벽면은 독널무덤과 어우러져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독립된 공간에 전시된 나주 신촌리 금동관(국보)은 원형으로 출토된 한국 최초의 고대 금동관이자 당시 문화를 연구하는 데 학술적·예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다. 이외에도 다채로운 전시품으로 구석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문화와 역사, 종교와 생활상을 만날 수 있다.

국립나주박물관에서 여행의 말미를 장식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곳이 있다. 1929년 경복궁에 옮겨진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되다가 88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나주 서성문 안 석등(보물)이다. 아픈 시간이 무색할만큼 우직하게 서있는 석등이 건네는 말에 귀를 기울이면, 일상의 바쁘고 힘든 시간들과도 다정하게 대화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국립나주박물관 특별전
〈영원한 여정, 특별한 동행 : 상형 토기와 토우 장식 토기〉
2024.4.23.~7.28.

2023년에 개최한 국립중앙박물관 기획특별전 〈영원한 여정, 특별한 동행〉의 순회전시로 신라, 가야지역에서 출토한 상형 토기와 토우 장식 토기를 소개한다. 나주 순회전시에는 영산강 유역에서 출토한 상형 토기와 토우 장식 토기도 함께 소개해 여러 지역의 장승 의례를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토기의 제작 배경과 기능, 그 속에 담긴 본질적인 의미를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전시이다.

정리. 편집팀



불회사 ©한국관광공사-김지호



국립나주박물관

오랜 자부심, 새로운 감성

미국 속의 작은 한국, 휴스턴박물관(MFAH) 한국실을 재개관하며



도2. 휴스턴박물관 한국실

올해 3월, 전시품을 설치하기 위해 휴스턴을 방문했을 때는 완전한 봄이었다. 휴스턴박물관 한국실 재개관식에 참석하기 위해 다시 찾은 5월의 휴스턴은 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뜨거운 여름이 되어 있었다.

휴스턴박물관^{도1}은 고대와 서양화 위주의 오드리 존스 벡The Audrey Jones Beck 빌딩, 아시아관과 특별전을 진행하는 캐럴라인 와이스 로The Caroline Wiess Law 빌딩, 현대미술 위주의 낸시 앤 리치 킨더The Nancy and Rich Kinder 빌딩을 포함 총 3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한여름에도 40도를 훌쩍 넘기는 폭염으로 유명한 휴스턴의 특성을 고려하여 3개의 건물은 모두 지하터널로 연결됐다. 그리고 3개의 터널은 각각 3명의 작가에게 의뢰하여 특별한 빛의 공간으로 만

들어 관람객이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휴스턴박물관 한국실은 캐럴라인 와이스 로 빌딩 1층에 자리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관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위치하고, 로 빌딩에서 2개의 특별전시가 동시에 열리기 때문에 관람객 접근성이 매우 좋은 편이다. 한국실은 2007년 한국국제교류재단, (주)풍산, 한인사회의 도움에 힘입어 개관하였고, 현재까지 같은 장소에서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우리 관은 2007년부

터 2022년까지 두 번의 개편에 걸쳐 약 82점의 소장품을 대여해왔으며, 한국실 지원 사업으로 전시장 환경 개선을 한 후 올해 29건 31점의 소장품을 새롭게 대여하면서 재개관을 하게 되었다. 전시장 바닥을 교체하고 벽을 도색하면서 진열장을 신규 제작하는 등, 한국실의 외관도 달라졌지만, 전시의 내용으로도 변화를 꾀하게 되었다.

그동안 휴스턴박물관 한국실은 약 40점 수량의 전시품으로 빗살무늬토기 등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와 현대작품까지



도1. 휴스턴박물관 전경



도4. 태지접시, 태항아리 및 백자제기 진열장

한국의 역사와 문화 전반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해 왔다. 각 시대를 개괄적으로만 살펴볼 수 있었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휴스턴박물관의 브래들리 베일리Bradley Bailey 아시아관 총괄 큐레이터는 시대별 주제를 달리해 개편해 나가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렇게 선정된 이번 한국실의 주제는 조선시대의 삶과 문화로, 우리 관에서는 조선시대 사람들의 생활과 의례를 보여주는 도자, 목가구, 불상 등을 출품하였다. 여기에 휴스턴박물관이 소장하거나 외부에서 대여한 현대작품 4점이 추가로 전시되었다.

조선시대 목조여래좌상과 휴스턴박물관 소장 이기조 작가의 달항아리가 관람객을 맞이하는 도입부를 지나 한국실로 들어가면 호랑이 다리 모양 소반 2점이 금강산을 그린 칠보산도 8폭 병풍과 단추로 조선 궁궐을 재해석한 황관 작가의 현대작품을 배경으로 전시돼 있다.^{도2} 마치 금강산과 궁궐을 배경으로 다과상을 받는 기분이 들어 관람객에서 산뜻한 느낌을 선사한다.

전시장 한 가운데 큰 진열장 안에서 위용을 뽐내고 있는 것은 조선 왕실의 상징으로 의례에 사용된 용과 구름을 그린 청화백자 항아리 두 점이다. 특히 큰 항아리는 고이건희 회장의 기증품으로, 한국실의 대표 전시품으로서 압도감을 드러낸다.^{도3} 이어서 삶과 죽음에 대해 조선시대 사람들이 가졌던 유교적 관념을 보여주는 백자들을 감상하는 것 역시 이번 한국실의 색다른 묘미이다. 선조의 열둘째 왕자인 인홍군 둘



도3.
구름과 용무늬 항아리
조선
높이 56.5cm, 입지름 18.7cm,
최대지름 43.0cm
이건희 기증
선수 13745

째 딸의 태를 담은 태항아리와 이를 기록한 태지접시가 전시돼 있는데, 비석이 아닌 백자 접시에 기록을 남긴 드문 사례로 귀중한 자료이다. 함께 전시된 제사에 사용된 백자 제기들은 순백의 숭고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도4}

마지막 벽면은 휴스턴박물관이 외부 개인 소장가로부터 장기 대여한 이우환 작품을 배경으로 연적, 붓, 벼루 등이 전시되어 문인의 예술적 취향을 드러낸다. 특히 선비가 붓에 먹을 묻혀 자유로이 선을 그은 듯한 조화로우미 눈에 띈다. 이렇듯 개편된 한국실은 우리 관과 휴스턴박물관의 소장품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현대적 미감

으로 이어지는 조선의 미술과 문화를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

5월 16일 목요일, 휴스턴박물관에서는 한국실 재개관을 기념하는 공식 행사가 열렸다. 윤성용 국립중앙박물관장을 포함하여 게리 틴테로Gary Tinterow 휴스턴박물관장, 정영호 주휴스턴 총영사, 현지 언론사 기자들 및 재미 교포들 약 30명이 참석하여 한국실 재개관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휴스턴박물관 한국실의 개관과 꾸준한 유지에는 휴스턴 한인사회의 역할이 컸다. 특히 많은 한인이 휴스턴박물관이 한국 문화유산을 구입할 때 기금을 마련하는 데에 큰 공헌을 했다. 휴스턴 한인회 회원이자 작가로도 활동하는 이종옥 선생님은 이국땅에서 바쁘게 생활하며 본인이 누구인지, 어느 나라 사람이었는지를 잊어가고 있었는데 휴스턴박물관 한국실 개관 때 비로소 본인의 뿌리를 찾은 것 같은 큰 감동이 있었다고 말해 모두를 뭉클하게 했다. 한국실은 현지 외국인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한 곳이지만, 한국을 떠나 사는 교민들의 자부심의 무대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이번 한국실이 이곳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한국 문화를 보여주는 새로운 감성을 전달하고, 또 한편으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아 나가는 뜻깊은 공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글. 양승미 국립중앙박물관 전시과 학예연구사

영산의 모임, 진천 영수사 괘불

The Great Assembly at Vulture Peak:

Large Buddhist Hanging Scroll from Yeongsusa Temple, Jincheon

거대한 괘불이 사찰 마당에 걸리는 순간
그곳은 석가모니불의 가르침이 펼쳐진 영산이 된다.
영산에 모인 모든 이와 세상을 떠난 모든 영혼을 위로하는 안식의 시간.
오래전 우리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던 괘불에 위안을 얻는다.



진천 영수사 괘불
명옥 등 4인
조선 1653년
삼베에 색
919×570.5cm
충북 진천 영수사
보물
©(사)성보문화유산연구원

QR코드에 접속하면 국립중앙박물관 불교회화실에 걸린 〈진천 영수사 괘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다루는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교육

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 교육 아카데미

2022년 국제박물관협회(ICOM)가 새롭게 채택한 「박물관 정의」에서는 접근성, 포용성, 다양성, 지속가능성, 지역사회 연계 등을 언급하며 박물관의 윤리와 함께 전문성을 강조하였다. 여기에는 소장품의 보존, 활용 기능에 더하여 동시대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박물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담겨 있다. 이처럼 박물관의 위상과 역할이 변화함에 따라 박물관 전문인력도 더욱 다양하고 전문적이며 포용적인 역량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 자료와 달리 박물관·미술관 소장품은 훼손될 경우 되돌릴 수 없는 가치 손상을 가져온다. 따라서 이를 다루는 전문인력은 소장품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이를 보존, 관리, 활용하기 위한 필수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대내외 환경 변화와 수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박물관에 적용하기 위한 새로운 역량 습득도 필요하다. 전문 분야와 경력 단계별로 요구되는 실행 역량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지만 지금까지 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에 대한 통합적·체계적 재교육 훈련 과정은 미흡한 상태였다.

이에 국립중앙박물관은 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의 직무 전문성과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통합적 교육훈련 과정을 설계하고 2024년 7월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이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지난해 새롭게 수립한 「박물관 교육 중장기 발전 방안(2024~2028)」 중 핵심과제인 ‘매개자 교육 확대 강화’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사)한국박물관협회와 함께 ‘박물관·미술관 학예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설계 및 제도화 방안 연구’도 함께 진행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박물관·미술관 운영 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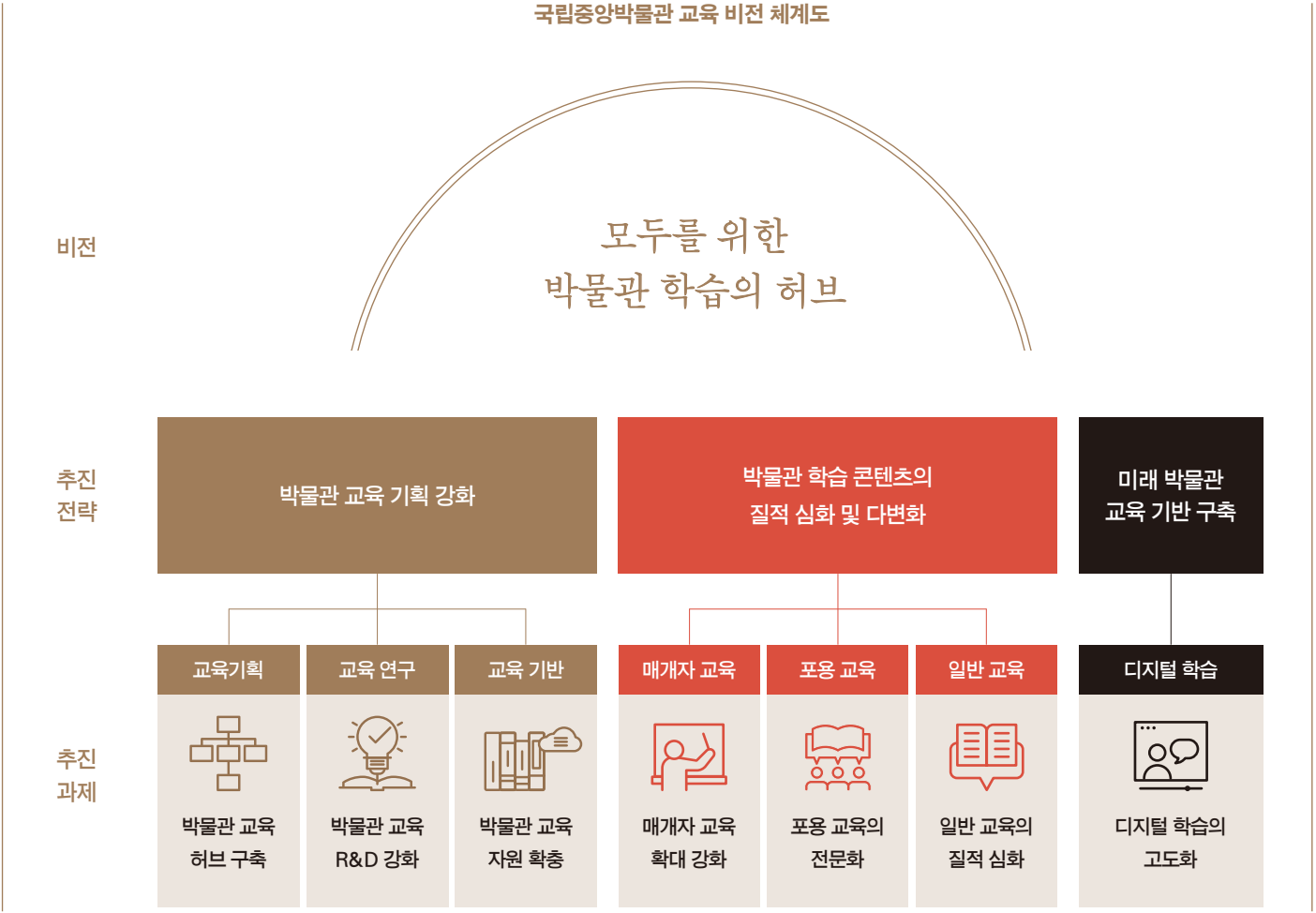
성을 감안한 전문인력 역량 프레임워크를 새로 설계하였다. 박물관·미술관의 가치 모델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5개 분야 역량(기초역량, 소장품역량, 미래역량, 관계역량, 경영역량)을 설정하고 7개 실행 역량(기획력, 문제 해결, 업무 추진/관리, 이해관계 조정, 소통과 공감, 융복합적 사고, 변화 주도)과 연계해 구조화하였다. 이로써 목표 역량을 고려해 과정을 설계하고 강좌별 연결성을 강화하여 평가 방향 설정과 환류에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과정 설계, 운영, 평가를 통해 지속 보완하며 이를 전문 역량 개발 중장기 계획 수립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학습자 맥락을 반영해 일반 과정과 특화 과정으로 구분해 설계하였다. 일반 과정은 접근성, 디지털, ESG 등 최근 박물관·미술관 현장에서 시의성 높은 주제 중심으로 구성되며 재직 여부나 분야 구분 없이 누구나 수강이 가능한 과정이다. 특화 과정은 기관 특성, 경력 단계,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해 설계한 과정으로 단계별 과정, 분야별 과정, 연구 과정으로 세분된다.

단계별 과정은 재직 학예인력 대상 종합 과정이다. 핵심 과제 중심 소장품역량



매뉴얼 영상 제작 모습



강화, 당면 과제 중심 미래역량 강화, 지속 과제 중심 관계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입문, 기초, 심화, 기획, 리더십 과정이 2~5일 동안 집중적으로 운영된다. 2024년에는 전국 61개 국립박물관 학예인력 대상으로 우선 설계한 과정 운영과 2025년 1분기 운영을 목표로 한 국립박물관 특화 과정 설계가 이루어진다. 이를 위한 별도 수요 조사와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다.

분야별 과정은 보존처리, 소장품관리, 전시, 촬영 등 소장품 역량에 대한 실습 중심 연속 과정으로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연구 과정은 직무별 현장 역량 전수 및 체계화를 위한 강사 양성 과정으로 현안 기반 교과 구성과 상호 연계, 효과적 교수법 연구 등이 함

께 이루어진다.

집합교육과 함께 다양한 형식의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해 상시학습 가능한 환경을 마련할 것이다. 실습과 연계하여 소장품 관리·활용 단계에서 활용이 가능한 매뉴얼 영상, 주제별 동영상 강의, 자기 진단 과정 등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온라인 콘텐츠로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 이터닝 플랫폼 ‘뮤지엄 아카데미’(museumacademy.co.kr)에서 회원 가입 후 이용이 가능하다.

‘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 교육 아카데미’는 국립중앙박물관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안내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박물관·미술관별 운영 환경의 특수성과 보편

성을 고려한 기획과 운영, 단계별 확대를 위해 관련 기관들과 포괄적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현장 실효성 있는 교육 운영을 위해 직무 전문성과 교수 역량을 갖춘 실무자 중심의 강사 양성도 중요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해 과정 기획, 운영, 평가, 환류, 표준화로 구조화된 통합 훈련 체계가 점차 마련되고, 이 체계가 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며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1. 국립중앙박물관, 2023, 『국립중앙박물관 교육 중장기 발전발전 연구』

글. 윤지연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과 학예연구사

국립중앙박물관, 기증관 ‘특별공개’ 국보 교체 전시

〈감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 보현행원품〉·〈노안도〉 외



대방광불화엄경 보현행원품

국립중앙박물관은 기증관 재개관을 기념하여 특별공개한 국보 〈세한도〉와 고려시대 〈수월관음도〉의 전시를 종료하고 지난 5월 8일부터 국보 〈감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 보현행원품 紺紙金泥大方廣佛華嚴經 普賢行願品〉과 〈노안도 盧雁圖〉를 공개하고 있다.

국보 〈감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 보현행원품〉은 고 이견희 회장 기증품으로, 변상도와 화가의 이름, 사성기(寫成記) 등 격식을 제대로 갖춘 고려시대 사경(寫經)이다. 〈노안도〉는 한국청년회의소가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전개한 해외유출문화재 환수 운동을 위해 모금하여 한국박물관회(현 국립중앙박물관 회)에 위탁, 구입한 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 조선시대 회화이다.

이 밖에도 동원 이홍근 선생이 기증한 안종식의 〈도원행주도 桃園行舟圖〉와 〈기명절지도 琴血折枝圖〉 등 총 7건 8점의 서화가 국립중앙박물관 기증관에서 새롭게 관람객을 만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3D 데이터 16건 대국민 공개 문화산업 원천 콘텐츠 자원으로 활용 기대



국립중앙박물관이 2023년에 이어 국보 ‘반가사유상’을 포함 총 16건의 소장품 3D 데이터를 추가로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3D 데이터는 금동 반가사유상, 철제여래좌상 등이다. 해당 데이터는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공공누리 1유형으로 만날 수 있으며, 누구나 출처 표기 후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철제여래좌상

국립중앙박물관은 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해 3D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나아가 문화산업의 원천 콘텐츠 자원으로 활용되는 데 기여하고자 대국민 공개 서비스를 병행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에 공개한 국보 ‘농경문 청동기’ 등 108건의 3D 데이터는 약 14,000회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높은 이용률과 활용도를 보인 바 있다. 이번 공개에 이어 ‘백자 달항아리’ 등 총 10건의 3D 데이터를 추가로 구축해 올해 안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 ‘3D 데이터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와 강좌 개최 ‘2024년 AsIA인문자산강좌-동남아시아의 미술과 문화’

국립중앙박물관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AsIA지역인문학센터와 공동으로 ‘2024년 AsIA인문자산강좌-동남아시아의 미술과 문화’를 열고 있다. ‘AsIA인문자산강좌’는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와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2021년부터 아시아 인문자산 대중화를 위해 시작했으며, 올해는 동남아시아의 미술과 문화를 주제로 5월 9일부터 6월 20일까지 총 6회 강좌를 마련했다. 지난 5월에는 ▲1강 ‘동남아시아의 기증문화’(5.9) ▲2강 ‘동남아에 전해진 힌두교 이야기’(5.16) ▲3강 ‘동남아 하이테크, 베트남과 태국 도자기’(5.23) ▲4강 ‘동남아 상좌불교의 특징과 미술’(5.30)을 진행했다. 6월에는 ▲5강 ‘동남아시아의 이슬람 문화’(6.13) ▲6강 ‘찬란한 왕국의 영화, 동남아의 초기 불교미술’(6.20)이 예정돼 있다. 16세기 이후 동남아시아에서 이슬람 문화의 발전과정과 특징, 3~9세기 동안 동남아시아에서 발전한 대승불교와 불교미술을 다룬다. 동남아시아의 미술과 문화를 심도 깊게 살펴볼 수 있는 ‘2024년 AsIA인문자산강좌’는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강연 형태로 개최 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립중앙박물관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생중계되며, 강연 종료 후엔 다시보기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립경주박물관, 신라 문화유산 시리즈 5권 발간

천마총 금관부터 황룡사 치미까지 쉽게 읽는 소장품 안내서



국립경주박물관이 신라를 대표하는 소장품 5종의 쉬운 안내서 『신라 문화유산 시리즈』 5권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신라 문화유산 시리즈』 5권은 국립경주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이 직접 투표해 선정한 경주박물관의 10대 전시품 중 천마총 금관, 황금 보검, 토우 장식 항아리, 얼굴 무늬 수막새, 황룡사 치미를 소개한다. 박물관만의 차별화된 전시 해설을 제공하고자 국립박물관 전·현직 학예연구직과 국내 최고 연구자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했으며, 연구자의 시각으로 소장품을 바라보는 경험과 전시품을 감상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한다. 『신라 문화유산 시리즈』는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2024 제13회 국립중앙박물관회 학술상 시상

금관상·은관상·특별상 수상자 발표



국립중앙박물관회가 지난 5월 14일 ‘2024 제13회 국립중앙박물관회 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국립중앙박물관회는 제13회 국립중앙박물관회 학술상을 위해 전국 국립 및 공·사립박물관 직원에게 2023년도에 발표한 연구논문을 5개 분야로 나눠 공모했다. 올해에는 고고학 6편, 역사학 6편, 미술사학 13편, 보존과학 4편, 박물관학 3편을 포함 총 32편의 연구논문과 4편의 전시 도록이 학술상에 응모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립중앙박물관회는 관련 학계 전문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학술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수상은 금관상, 은관상, 특별상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세 개의 논문이 금관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립중앙박물관 강원표 학예연구관의 「무령왕릉 묘실 내 장례과정의 복원」, 국립익산박물관 김울림 관장의 「매체로서의 금석과 리움미술관 이준광 학예연구원의 「고려 후기 범자 진연명상감점자의 해석과 의미」 연구논문이다.

국립경주박물관 김대환 학예연구사의 「고분군으로 본 모량부 내 중심집단의 변동」, 서울역사박물관 정수인 학예연구사의 「대한제국기 이후 황실 소유 토지의 변화 양상: 원서동을 중심으로」, 국립경주박물관 이현태 학예연구사의 「신라 천주사(天柱寺)의 위치 비정 재고」, 국립익산박물관 강건우 학예연구사의 「성주사 창건과 철불조성 연구」, 국립경주박물관 강상혜 학예연구관의 「오대산 중대 사자암목조비로자나불좌상 연구」, 국립경주박물관 전아라 공무원 직 직원 외 2명이 함께 연구한 「금령총 출토 가죽피 식별 연구」 논문은 은관상을 수상했다. 특별상의 영예는 김중업건축박물관의 『김중업 탄생 100주년 기념전』 특별전 전시 도록에 돌아갔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나전칠기·회화 등 뭇즈 8종 출시 케이스티파이와 협업한 두 번째 컬렉션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글로벌 테크 액세서리 브랜드인 케이스티파이(CASETIFY)와 협업해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문화유산을 활용한 두 번째 컬렉션을 선보였다. 이번에 출시한 제품은 스마트폰·무선이

어폰·노트북 케이스, 스마트폰 부착용 카드 지갑, 충전 스탠드 등 총 8종이다. 여기에 조선 중기 나전칠기의 대표작으로 알려진 ‘나전칠기 모란 매화무늬 옷상자’, 고려시대 나전 칠공예 기술이 집약된 ‘나전 대모 칠 국화 닳물무늬 합’, 신사임당의 작품으로 전해지는 초충도 ‘만드라미와 소통구리’ 등이 모티프로 활용됐다.

뭇즈와 테크가 만난 액세서리들은 케이스티파이 공식 홈페이지, 케이스티파이 스튜디오 오프라인 매장,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구입 가능하며, 컬렉션 실물은 국립중앙박물관 상품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립박물관 인사동정(4.16.~5.15.)				
전입	2024-04-29	학예연구관	성재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 → 국립중앙박물관 미래전략담당관
	2024-04-29	행정사무관	이수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 국립중앙박물관 미래전략담당관
	2024-04-29	전산주사	이금화	국립중앙도서관 →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박물관과
	2024-04-29	시설주사	안훈성	국립국악원 → 국립중앙박물관 시설관리과
	2024-04-29	행정주사	손화경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 국립중앙박물관 고객지원팀
	2024-04-29	행정주사	김미화	국립중앙극장 → 국립중앙박물관 디자인팀
	2024-04-29	행정주사	변준우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 국립경주박물관 기획운영과
	2024-04-29	행정서기	조민승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 국립전주박물관 기획운영과
	2024-04-29	전산주사	김정수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관 → 국립부여박물관 기획운영과
	2024-04-29	행정주사보	이경진	한국정책방송원 → 국립부여박물관 기획운영과
	2024-04-29	공업서기	김진겸	한국정책방송원 → 국립청주박물관 기획운영과
	2024-04-29	공업주사보	박진호	국립국악원 → 국립김해박물관 기획운영과
2024-04-29	시설주사보	고용우	국립국악원 → 국립김해박물관 기획운영과	
2024-04-29	전산주사보	고승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국립나주박물관 기획운영과	
전출	2024-04-29	전산주사	신은경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박물관과 →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관
	2024-04-29	행정주사	안선영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박물관과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2024-04-29	공업주사	노민호	국립중앙박물관 시설관리과 →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2024-04-29	행정주사	이희민	국립중앙박물관 고객지원팀 → 국립민속박물관
	2024-04-29	행정서기	임상미	국립경주박물관 기획운영과 → 국립국악원
	2024-04-29	행정서기보	김예은	국립부여박물관 기획운영과 → 한국정책방송원
	2024-04-29	공업주사	이승재	국립공주박물관 기획운영과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2024-04-29	공업주사보	서성민	국립진주박물관 기획운영과 → 국립국악원
	2024-04-29	시설주사	김유진	국립청주박물관 기획운영과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2024-04-29	학예연구사	김동완	국립청주박물관 학예연구실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
	2024-04-29	행정서기	김선형	국립춘천박물관 기획운영과 → 한국정책방송원
	2024-04-29	시설서기보	신재문	국립춘천박물관 기획운영과 → 국립중앙도서관
2024-04-29	전산주사보	조용선	국립나주박물관 기획운영과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24-04-29	행정서기	강원진	국립익산박물관 기획운영과 →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지원관	
2024-05-07	서기관	배양희	국립중앙박물관 문화교류홍보과장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장	
2024-05-07	학예연구관	장상훈	국립진주박물관장 → 국립민속박물관장	
전보	2024-04-15	학예연구사	박미선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실 →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
	2024-04-15	학예연구사	박승원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 →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실
	2024-04-29	행정주사보	김유철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박물관과 →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
	2024-04-29	행정서기보	손나리	국립중앙박물관 디자인팀 →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
	2024-04-29	행정주사보	노민지	국립중앙박물관 미래전략담당관 →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박물관과
	2024-04-29	행정주사보	김소연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 →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박물관과
	2024-04-29	공업주사보	정원화	국립경주박물관 기획운영과 → 국립중앙박물관 시설관리과
	2024-04-29	행정주사	현정복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 → 국립중앙박물관 고객지원팀
	2024-04-29	공업주사보	전영걸	국립김해박물관 기획운영과 → 국립경주박물관 기획운영과
	2024-04-29	공업주사보	김경동	국립경주박물관 기획운영과 → 국립공주박물관 기획운영과
	2024-04-29	시설주사	배성대	국립김해박물관 기획운영과 → 국립진주박물관 기획운영과
	2024-04-29	공업주사	서광영	국립부여박물관 기획운영과 → 국립청주박물관 기획운영과
2024-04-29	행정주사보	이은미	국립익산박물관 학예연구실 → 국립익산박물관 기획운영과	
휴직	2024-04-17~2024-10-16	학예연구사	곽은경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 휴직 연장
	2024-05-03~2024-06-02	학예연구사	서인혁	국립중앙박물관 디자인팀 → 휴직
	2024-04-17~2024-10-16	전기운영주사보	우현욱	국립대구박물관 기획운영과 → 휴직 연장
	2024-04-21~2025-04-20	행정주사보	김상희	국립진주박물관 학예연구실 → 휴직
복직	2024-05-01~2025-04-30	운전서기보	김세윤	국립청주박물관 기획운영과 → 휴직
	2024-05-01	방호주사보	이승은	국립대구박물관 기획운영과 → 복직
승진	2024-04-21	공업서기	문규홍	국립공주박물관 기획운영과 → 공업주사보
	2024-05-01	방호서기보	김광훈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 → 방호서기
	2024-05-01	운전서기	손형인	국립부여박물관 기획운영과 → 운전주사보
보임	2024-05-01	방호서기보	고대성	국립익산박물관 기획운영과 → 방호서기
	2024-05-01	방호서기보	양한진	국립익산박물관 기획운영과 → 방호서기
지원 근무	2024-04-29	서기관	김철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 국립부여박물관 기획운영과장
	2024-05-07	부이사관	박소정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진흥예술과장 → 국립중앙박물관 문화교류홍보과장
명예 퇴직	2024-04-29	시설주사	최양서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 국립중앙박물관 시설관리과
	2024-05-13	시설주사	김태웅	국립국악원 → 국립부여박물관 기획운영과
명예 퇴직	2024-04-24	공업주사	황광연	국립부여박물관 기획운영과

	6 JUNE	7 JULY	8 AUGUST	9 SEPTEMBER	10 OCTOBER
중앙	〈신장생, 열 가지 이야기〉 2023.5.2.~2024.8.18.				
	고대 그리스·로마실 2023.6.15.~2027.5.30.				
	〈옛 그림 속 꽃과 나비〉 2024.4.15.~7.28.				
	〈진전 영수사 폐불〉 2024.5.1.~10.13.	〈우라기 인디언으로 알던 사람들〉 2024.6.18.~10.9.			
경주		〈三國三尊-동아시아의 활기〉 2024.7.10.~9.22.			
	영남권역 수장고(개방형 수장고)		〈경주어린이박물관 70주년, 기억과 연결〉 2024.7.16.~9.22.		
	〈조물조를 꿈에 빚는 도자기〉				
	〈아시아도사문화, 역사문화1,2〉	〈도자기, 종류를 품다〉 2024.6.21.~9.22.			
광주					
	고이건희 회장 기증 석조문화유산 옥외전시 〈내 마음을 돌아보는 길〉 2023.12.8.~				
	〈미륵의 마음, 모악산 금산사〉 2024.5.3.~8.18.			〈한양가와 춘향전〉 2024.10.1.~2025.1.8.	
대구	개관 30주년 특별전 〈한국의 신발, 발과 신〉 2024.5.14.~9.22.				
	〈백제 명품, 백제 문양전〉, 〈백제금동대향로〉 디지털 실터 〈백제를 실감하다〉				
	아와전시장 개편 2024.5.~	〈제39회 어린이 문화유산 그리기대회 수상작 전시〉 2024.7.9.~9.22.			
	충청권역 수장고(개방형 수장고)		〈상상의 동물사전-백제의 용〉 2024.9.10.~2025.2.9.		
전주	〈임진왜란〉 〈경남역사문화〉			〈경상도 사기장 이야기(가제)〉 2024.9.30.~2025.2.23.	
	〈꼬마 친구들의 박물관 운동회〉, 〈문화유산 속 금속 이야기〉, 〈우리집에 놀러올래?〉				
				〈들의 정원〉	
청주		〈기록〉 2024.6.25.~11.3.			
	〈세계유산기아〉 2024.1.23. ~				
	〈세계유산백제, 세계유산기아〉 2024.5.2.~7.28.				
김해					
제주		〈고이건희 회장 기증 특별전 〈어느 수집가의 초대〉 2024.6.4.~8.18.			
춘천	〈한송사터 석조보살〉 2023.5.25.~				
	〈이상향으로의 초대, 금강산과 관동팔경〉 2023.12.5.~				
	〈다시 찾은 신라의 빛: 선림원터 금동보살입상〉 2024.5.14.~7.28.				

<p>〈문화유산을 지키는 박물관 사람들〉 2021.12.21. ~ 2024.12.31.</p>			
<p>〈국립나주박물관 다시, 열다〉 2023.12.15. ~</p>			
<p>〈영원한 여정, 특별한 동행: 신원토기와 투우장식 토기〉 2024.4.23. ~ 7. 28.</p>			
<p>〈도솔이와 함께 떠나는 미륵사 시간탐험〉 2022.1.1. ~</p>			
<p>〈미륵사지 기록집〉 2022.1.11. ~</p>			

	교육 프로그램	일시	장소		
중앙	상설전시실 연계 활동지 문화로-시대의 잊음을 찾아서' 활용 교육 유형아름김(병원학교) 박물관 문화탐험대 대면 교육 3.13.(수)~12.11.(수) 지정 수요일 14:00~15:30 병원학교 가족을 위한' 보호자용 놀이안내서' 활용 교육 (공간 오감)여기, 우리, 반가사유상	3.26.(화)~6.20.(목) 매주 화~목 10:00~12:00 / 14:00~16:00 3.13.(수)~12.11.(수) 지정 수요일 14:00~15:30 6.5.(수) 16:00~17:30 6.1.(토)~6.29.(토) 매주 화·목·토, 6.6.(목) 제외 10:00~11:30 / 14:00~15:30 6.3.(월)~6.24.(월) 매주 월 10:00~10:40 / 11:00~11:40	상설전시실 상설전시실 어린이박물관 속 숲속배움터 공간 오감 온라인		
	박물관 전문직 체험교실	6.3.(월)~6.24.(월) 매주 월 10:00~10:40 / 11:00~11:40	온라인		
	『우리기인』안으로 일터사람들』인터랙티브마블을참여 6.18.(화)~10.9.(수) 상설	6.18.(화)~10.9.(수) 상설	특별전시실		
	『유아/초등 자화!네! 전시 감상 교육_웹지에서 만난 신비로운 동물들』	6.4.(화)~6.25.(화) 매주 화 10:30~11:30 / 13:30~14:30	어린이박물관 오픈 랩실		
	『초등학교 단계』교과서 속 문화유산 '모여봐요, 토우마들'	6.5.(수)~6.26.(수) 매주 수 10:00~11:00	강당		
경주	『초등 고학년! 제7기! 경주어린이박물관학교 『유아/초등 자화!네! 뒤뉘 박물관 날릴기차 『상인! 큐레이터와의 대화』'출으로 만든 그릇' 쑥쑥 상상 도자기 여행 제18기! 경주어린이박물관학교 박물관에 내 친구 박물관에서 꿈꾸는 희망 교과창작_몽타주 특별전 연계 뮤지엄 토크 제34기! 경주박물관대학 (지적공간, 서양미술사) 6.5.(수)~6.19.(수) 지정 수요일 『유아단체! 문방사우를 찾아라!』	6.1.(토)~6.29.(토) 매주 토 10:00~12:00 6.1.(토)~6.30.(일) 매주 토·일 10:00~17:50 6.26.(수) 17:00~17:30 6.7.(금)~6.28.(금) 매주 금요일 6.8.(토)~6.22.(토) 지정 토요일 6월 중(예약제) 6월 중(예약제) 6.11.(화)~6.25.(화) 지정 화요일 6.26.(수) 6.5.(수)~6.19.(수) 지정 수요일 6.5.(수)~6.26.(수) 매주 수	수목당 어린이박물관 신라역사관 교육관 체험학습실 교육관 체험학습실, 전시실 교육관 체험학습실 교육관 체험학습실 교육관 체험학습실 교육관 체험학습실 교육관 대강당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교육실 기획전시실 기획전시실 옆 교육공간 어린이박물관 교육실 강당 문화사랑방 곰마루 문화사랑방, 강당 해솔관 로비 온라인 교육실 어린이박물관, 교육실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오늘은 내기 오작사!	6.13.(목)~6.14.(금), 6.19.(수), 6.21.(금) 10:00~11:30 6.15.(토)~6.29.(토) 13:30~14:30 / 15:00~16:00	교육실 교육실		
	전주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오늘은 내기 오작사!	6.13.(목)~6.14.(금), 6.19.(수), 6.21.(금) 10:00~11:30 6.15.(토)~6.29.(토) 13:30~14:30 / 15:00~16:00	교육실 교육실	
		대구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오늘은 내기 오작사!	6.13.(목)~6.14.(금), 6.19.(수), 6.21.(금) 10:00~11:30 6.15.(토)~6.29.(토) 13:30~14:30 / 15:00~16:00	교육실 교육실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오늘은 내기 오작사!	6.13.(목)~6.14.(금), 6.19.(수), 6.21.(금) 10:00~11:30 6.15.(토)~6.29.(토) 13:30~14:30 / 15:00~16:00	교육실 교육실
부여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오늘은 내기 오작사!	6.13.(목)~6.14.(금), 6.19.(수), 6.21.(금) 10:00~11:30 6.15.(토)~6.29.(토) 13:30~14:30 / 15:00~16:00	교육실 교육실	
		익산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오늘은 내기 오작사!	6.13.(목)~6.14.(금), 6.19.(수), 6.21.(금) 10:00~11:30 6.15.(토)~6.29.(토) 13:30~14:30 / 15:00~16:00	교육실 교육실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오늘은 내기 오작사!		6.13.(목)~6.14.(금), 6.19.(수), 6.21.(금) 10:00~11:30 6.15.(토)~6.29.(토) 13:30~14:30 / 15:00~16:00	교육실 교육실	
	나주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오늘은 내기 오작사!	6.13.(목)~6.14.(금), 6.19.(수), 6.21.(금) 10:00~11:30 6.15.(토)~6.29.(토) 13:30~14:30 / 15:00~16:00	교육실 교육실	
		충천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오늘은 내기 오작사!	6.13.(목)~6.14.(금), 6.19.(수), 6.21.(금) 10:00~11:30 6.15.(토)~6.29.(토) 13:30~14:30 / 15:00~16:00	교육실 교육실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오늘은 내기 오작사!			6.13.(목)~6.14.(금), 6.19.(수), 6.21.(금) 10:00~11:30 6.15.(토)~6.29.(토) 13:30~14:30 / 15:00~16:00	교육실 교육실	
제주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오늘은 내기 오작사!	6.13.(목)~6.14.(금), 6.19.(수), 6.21.(금) 10:00~11:30 6.15.(토)~6.29.(토) 13:30~14:30 / 15:00~16:00	교육실 교육실	
		김해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오늘은 내기 오작사!	6.13.(목)~6.14.(금), 6.19.(수), 6.21.(금) 10:00~11:30 6.15.(토)~6.29.(토) 13:30~14:30 / 15:00~16:00	교육실 교육실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오늘은 내기 오작사!		6.13.(목)~6.14.(금), 6.19.(수), 6.21.(금) 10:00~11:30 6.15.(토)~6.29.(토) 13:30~14:30 / 15:00~16:00	교육실 교육실	
	창주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오늘은 내기 오작사!	6.13.(목)~6.14.(금), 6.19.(수), 6.21.(금) 10:00~11:30 6.15.(토)~6.29.(토) 13:30~14:30 / 15:00~16:00	교육실 교육실	
		경주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오늘은 내기 오작사!	6.13.(목)~6.14.(금), 6.19.(수), 6.21.(금) 10:00~11:30 6.15.(토)~6.29.(토) 13:30~14:30 / 15:00~16:00	교육실 교육실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오늘은 내기 오작사!			6.13.(목)~6.14.(금), 6.19.(수), 6.21.(금) 10:00~11:30 6.15.(토)~6.29.(토) 13:30~14:30 / 15:00~16:00	교육실 교육실	
부여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오늘은 내기 오작사!	6.13.(목)~6.14.(금), 6.19.(수), 6.21.(금) 10:00~11:30 6.15.(토)~6.29.(토) 13:30~14:30 / 15:00~16:00	교육실 교육실	
		익산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오늘은 내기 오작사!	6.13.(목)~6.14.(금), 6.19.(수), 6.21.(금) 10:00~11:30 6.15.(토)~6.29.(토) 13:30~14:30 / 15:00~16:00	교육실 교육실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오늘은 내기 오작사!		6.13.(목)~6.14.(금), 6.19.(수), 6.21.(금) 10:00~11:30 6.15.(토)~6.29.(토) 13:30~14:30 / 15:00~16:00	교육실 교육실	
	나주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오늘은 내기 오작사!	6.13.(목)~6.14.(금), 6.19.(수), 6.21.(금) 10:00~11:30 6.15.(토)~6.29.(토) 13:30~14:30 / 15:00~16:00	교육실 교육실	
		충천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오늘은 내기 오작사!	6.13.(목)~6.14.(금), 6.19.(수), 6.21.(금) 10:00~11:30 6.15.(토)~6.29.(토) 13:30~14:30 / 15:00~16:00	교육실 교육실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오늘은 내기 오작사!			6.13.(목)~6.14.(금), 6.19.(수), 6.21.(금) 10:00~11:30 6.15.(토)~6.29.(토) 13:30~14:30 / 15:00~16:00	교육실 교육실	
제주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오늘은 내기 오작사!	6.13.(목)~6.14.(금), 6.19.(수), 6.21.(금) 10:00~11:30 6.15.(토)~6.29.(토) 13:30~14:30 / 15:00~16:00	교육실 교육실	
		김해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오늘은 내기 오작사!	6.13.(목)~6.14.(금), 6.19.(수), 6.21.(금) 10:00~11:30 6.15.(토)~6.29.(토) 13:30~14:30 / 15:00~16:00	교육실 교육실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오늘은 내기 오작사!		6.13.(목)~6.14.(금), 6.19.(수), 6.21.(금) 10:00~11:30 6.15.(토)~6.29.(토) 13:30~14:30 / 15:00~16:00	교육실 교육실	
	창주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오늘은 내기 오작사!	6.13.(목)~6.14.(금), 6.19.(수), 6.21.(금) 10:00~11:30 6.15.(토)~6.29.(토) 13:30~14:30 / 15:00~16:00	교육실 교육실	
		경주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오늘은 내기 오작사!	6.13.(목)~6.14.(금), 6.19.(수), 6.21.(금) 10:00~11:30 6.15.(토)~6.29.(토) 13:30~14:30 / 15:00~16:00	교육실 교육실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오늘은 내기 오작사!			6.13.(목)~6.14.(금), 6.19.(수), 6.21.(금) 10:00~11:30 6.15.(토)~6.29.(토) 13:30~14:30 / 15:00~16:00	교육실 교육실	
부여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오늘은 내기 오작사!	6.13.(목)~6.14.(금), 6.19.(수), 6.21.(금) 10:00~11:30 6.15.(토)~6.29.(토) 13:30~14:30 / 15:00~16:00	교육실 교육실	
		익산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오늘은 내기 오작사!	6.13.(목)~6.14.(금), 6.19.(수), 6.21.(금) 10:00~11:30 6.15.(토)~6.29.(토) 13:30~14:30 / 15:00~16:00	교육실 교육실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오늘은 내기 오작사!		6.13.(목)~6.14.(금), 6.19.(수), 6.21.(금) 10:00~11:30 6.15.(토)~6.29.(토) 13:30~14:30 / 15:00~16:00	교육실 교육실	
	나주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오늘은 내기 오작사!	6.13.(목)~6.14.(금), 6.19.(수), 6.21.(금) 10:00~11:30 6.15.(토)~6.29.(토) 13:30~14:30 / 15:00~16:00	교육실 교육실	
		충천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오늘은 내기 오작사!	6.13.(목)~6.14.(금), 6.19.(수), 6.21.(금) 10:00~11:30 6.15.(토)~6.29.(토) 13:30~14:30 / 15:00~16:00	교육실 교육실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오늘은 내기 오작사!			6.13.(목)~6.14.(금), 6.19.(수), 6.21.(금) 10:00~11:30 6.15.(토)~6.29.(토) 13:30~14:30 / 15:00~16:00	교육실 교육실	
제주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오늘은 내기 오작사!	6.13.(목)~6.14.(금), 6.19.(수), 6.21.(금) 10:00~11:30 6.15.(토)~6.29.(토) 13:30~14:30 / 15:00~16:00	교육실 교육실	
		김해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오늘은 내기 오작사!	6.13.(목)~6.14.(금), 6.19.(수), 6.21.(금) 10:00~11:30 6.15.(토)~6.29.(토) 13:30~14:30 / 15:00~16:00	교육실 교육실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오늘은 내기 오작사!		6.13.(목)~6.14.(금), 6.19.(수), 6.21.(금) 10:00~11:30 6.15.(토)~6.29.(토) 13:30~14:30 / 15:00~16:00	교육실 교육실	
	창주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오늘은 내기 오작사!	6.13.(목)~6.14.(금), 6.19.(수), 6.21.(금) 10:00~11:30 6.15.(토)~6.29.(토) 13:30~14:30 / 15:00~16:00	교육실 교육실	
		경주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오늘은 내기 오작사!	6.13.(목)~6.14.(금), 6.19.(수), 6.21.(금) 10:00~11:30 6.15.(토)~6.29.(토) 13:30~14:30 / 15:00~16:00	교육실 교육실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오늘은 내기 오작사!			6.13.(목)~6.14.(금), 6.19.(수), 6.21.(금) 10:00~11:30 6.15.(토)~6.29.(토) 13:30~14:30 / 15:00~16:00	교육실 교육실	
부여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오늘은 내기 오작사!	6.13.(목)~6.14.(금), 6.19.(수), 6.21.(금) 10:00~11:30 6.15.(토)~6.29.(토) 13:30~14:30 / 15:00~16:00	교육실 교육실	
		익산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오늘은 내기 오작사!	6.13.(목)~6.14.(금), 6.19.(수), 6.21.(금) 10:00~11:30 6.15.(토)~6.29.(토) 13:30~14:30 / 15:00~16:00	교육실 교육실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오늘은 내기 오작사!		6.13.(목)~6.14.(금), 6.19.(수), 6.21.(금) 10:00~11:30 6.15.(토)~6.29.(토) 13:30~14:30 / 15:00~16:00	교육실 교육실	
	나주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오늘은 내기 오작사!	6.13.(목)~6.14.(금), 6.19.(수), 6.21.(금) 10:00~11:30 6.15.(토)~6.29.(토) 13:30~14:30 / 15:00~16:00	교육실 교육실	
		충천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오늘은 내기 오작사!	6.13.(목)~6.14.(금), 6.19.(수), 6.21.(금) 10:00~11:30 6.15.(토)~6.29.(토) 13:30~14:30 / 15:00~16:00	교육실 교육실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오늘은 내기 오작사!			6.13.(목)~6.14.(금), 6.19.(수), 6.21.(금) 10:00~11:30 6.15.(토)~6.29.(토) 13:30~14:30 / 15:00~16:00	교육실 교육실	
제주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오늘은 내기 오작사!	6.13.(목)~6.14.(금), 6.19.(수), 6.21.(금) 10:00~11:30 6.15.(토)~6.29.(토) 13:30~14:30 / 15:00~16:00	교육실 교육실	
		김해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오늘은 내기 오작사!	6.13.(목)~6.14.(금), 6.19.(수), 6.21.(금) 10:00~11:30 6.15.(토)~6.29.(토) 13:30~14:30 / 15:00~16:00	교육실 교육실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오늘은 내기 오작사!		6.13.(목)~6.14.(금), 6.19.(수), 6.21.(금) 10:00~11:30 6.15.(토)~6.29.(토) 13:30~14:30 / 15:00~16:00	교육실 교육실	
	창주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오늘은 내기 오작사!	6.13.(목)~6.14.(금), 6.19.(수), 6.21.(금) 10:00~11:30 6.15.(토)~6.29.(토) 13:30~14:30 / 15:00~16:00	교육실 교육실	
		경주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오늘은 내기 오작사!	6.13.(목)~6.14.(금), 6.19.(수), 6.21.(금) 10:00~11:30 6.15.(토)~6.29.(토) 13:30~14:30 / 15:00~16:00	교육실 교육실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오늘은 내기 오작사!			6.13.(목)~6.14.(금), 6.19.(수), 6.21.(금) 10:00~11:30 6.15.(토)~6.29.(토) 13:30~14:30 / 15:00~16:00	교육실 교육실	
부여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오늘은 내기 오작사!	6.13.(목)~6.14.(금), 6.19.(수), 6.21.(금) 10:00~11:30 6.15.(토)~6.29.(토) 13:30~14:30 / 15:00~16:00	교육실 교육실	
		익산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오늘은 내기 오작사!	6.13.(목)~6.14.(금), 6.19.(수), 6.21.(금) 10:00~11:30 6.15.(토)~6.29.(토) 13:30~14:30 / 15:00~16:00	교육실 교육실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오늘은 내기 오작사!		6.13.(목)~6.14.(금), 6.19.(수), 6.21.(금) 10:00~11:30 6.15.(토)~6.29.(토) 13:30~14:30 / 15:00~16:00	교육실 교육실	
	나주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오늘은 내기 오작사!	6.13.(목)~6.14.(금), 6.19.(수), 6.21.(금) 10:00~11:30 6.15.(토)~6.29.(토) 13:30~14:30 / 15:00~16:00	교육실 교육실	
		충천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오늘은 내기 오작사!	6.13.(목)~6.14.(금), 6.19.(수), 6.21.(금) 10:00~11:30 6.15.(토)~6.29.(토) 13:30~14:30 / 15:00~16:00	교육실 교육실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오늘은 내기 오작사!			6.13.(목)~6.14.(금), 6.19.(수), 6.21.(금) 10:00~11:30 6.15.(토)~6.29.(토) 13:30~14:30 / 15:00~16:00	교육실 교육실	
제주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오늘은 내기 오작사!	6.13.(목)~6.14.(금), 6.19.(수), 6.21.(금) 10:00~11:30 6.15.(토)~6.29.(토) 13:30~14:30 / 15:00~16:00	교육실 교육실	
		김해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오늘은 내기 오작사!	6.13.(목)~6.14.(금), 6.19.(수), 6.21.(금) 10:00~11:30 6.15.(토)~6.29.(토) 13:30~14:30 / 15:00~16:00	교육실 교육실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오늘은 내기 오작사!		6.13.(목)~6.14.(금), 6.19.(수), 6.21.(금) 10:00~11:30 6.15.(토)~6.29.(토) 13:30~14:30 / 15:00~16:00	교육실 교육실	
	창주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오늘은 내기 오작사!	6.13.(목)~6.14.(금), 6.19.(수), 6.21.(금) 10:00~11:30 6.15.(토)~6.29.(토) 13:30~14:30 / 15:00~16:00	교육실 교육실	
		경주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오늘은 내기 오작사!	6.13.(목)~6.14.(금), 6.19.(수), 6.21.(금) 10:00~11:30 6.15.(토)~6.29.(토) 13:30~14:30 / 15:00~16:00	교육실 교육실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오늘은 내기 오작사!			6.13.(목)~6.14.(금), 6.19.(수), 6.21.(금) 10:00~11:30 6.15.(토)~6.29.(토) 13:30~14:30 / 15:00~16:00	교육실 교육실	
부여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오늘은 내기 오작사!	6.13.(목)~6.14.(금), 6.19.(수), 6.21.(금) 10:00~11:30 6.15.(토)~6.29.(토) 13:30~14:30 / 15:00~16:00	교육실 교육실	
		익산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오늘은 내기 오작사!	6.13.(목)~6.14.(금), 6.19.(수), 6.21.(금) 10:00~11:30 6.15.(토)~6.29.(토) 13:30~14:30 / 15:00~16:00	교육실 교육실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오늘은 내기 오작사!		6.13.(목)~6.14.(금), 6.19.(수), 6.21.(금) 10:00~11:30 6.15.(토)~6.29.(토) 13:30~14:30 / 15:00~16:00	교육실 교육실	
	나주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오늘은 내기 오작사!	6.13.(목)~6.14.(금), 6.19.(수), 6.21.(금) 10:00~11:30 6.15.(토)~6.29.(토) 13:30~14:30 / 15:00~16:00	교육실 교육실	
		충천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오늘은 내기 오작사!	6.13.(목)~6.14.(금), 6.19.(수), 6.21.(금) 10:00~11:30 6.15.(토)~6.29.(토) 13:30~14:30 / 15:00~16:00	교육실 교육실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오늘은 내기 오작사!			6.13.(목)~6.14.(금), 6.19.(수), 6.21.(금) 10:00~11:30 6.15.(토)~6.29.(토) 13:30~14:30 / 15:00~16:00	교육실 교육실	
제주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오늘은 내기 오작사!	6.13.(목)~6.14.(금), 6.19.(수), 6.21.(금) 10:00~11:30 6.15.(토)~6.29.(토) 13:30~14:30 / 15:00~16:00	교육실 교육실	
		김해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오늘은 내기 오작사!	6.13.(목)~6.14.(금), 6.19.(수), 6.21.(금) 10:00~11:30 6.15.(토)~6.29.(토) 13:30~14:30 / 15:00~16:00	교육실 교육실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오늘은 내기 오작사!		6.13.(목)~6.14.(금), 6.19.(수), 6.21.(금) 10:00~11:30 6.15.(토)~6.29.(토) 13:30~14:30 / 15:00~16:00	교육실 교육실	
	창주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오늘은 내기 오작사!	6.13.(목)~6.14.(금), 6.19.(수), 6.21.(금) 10:00~11:30 6.15.(토)~6.29.(토) 13:30~14:30 / 15:00~16:00	교육실 교육실	
		경주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오늘은 내기 오작사!	6.13.(목)~6.14.(금), 6.19.(수), 6.21.(금) 10:00~11:30 6.15.(토)~6.29.(토) 13:30~14:30 / 15:00~16:00	교육실 교육실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오늘은 내기 오작사!			6.13.(목)~6.14.(금), 6.19.(수), 6.21.(금) 10:00~11:30 6.15.(토)~6.29.(토) 13:30~14:30 / 15:00~16:00	교육실 교육실	
부여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오늘은 내기 오작사!	6.13.(목)~6.14.(금), 6.19.(수), 6.21.(금) 10:00~11:30 6.15.(토)~6.29.(토) 13:30~14:30 / 15:00~16:00	교육실 교육실	
		익산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오늘은 내기 오작사!	6.13.(목)~6.14.(금), 6.19.(수), 6.21.(금) 10:00~11:30 6.15.(토)~6.29.(토) 13:30~14:30 / 15:00~16:00	교육실 교육실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오늘은 내기 오작사!		6.13.(목)~6.14.(금), 6.19.(수), 6.21.(금) 10:00~11:30 6.15.(토)~6.29.(토) 13:30~14:30 / 15:00~16:00	교육실 교육실	
	나주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오늘은 내기 오작사!	6.13.(목)~6.14.(금), 6.19.(수), 6.21.(금) 10:00~11:30 6.15.(토)~6.29.(토) 13:30~14:30 / 15:00~16:00	교육실 교육실	
		충천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오늘은 내기 오작사!	6.13.(목)~6.14.(금), 6.19.(수), 6.21.(금) 10:00~11:30 6.15.(토)~6.29.(토) 13:30~14:30 / 15:00~16:00	교육실 교육실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오늘은 내기 오작사!			6.13.(목)~6.14.(금), 6.19.(수), 6.21.(금) 10:00~11:30 6.15.(토)~6.29.(토) 13:30~14:30 / 15:00~16:00	교육실 교육실	
제주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오늘은 내기 오			

초여름의 청량한 문화향연

화창한 6월, 초여름의 청량함을 머금은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는 ‘치유’를 주제로 2편의 공연이,
국립부여박물관과 국립전주박물관에서는 ‘박물관 속 밴드’ 공연이 열린다.



국립중앙박물관 ×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일자: 2024.6.15.(토) 오후 3시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은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된 판소리, 농악을 비롯하여 산조, 민요, 병창, 사물놀이 등 다양한 민속악 분야의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소리극, 굿음악 등의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작품으로 우리 민속악의 정수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일자: 2024.6.22.(토) 오후 3시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

1985년 국내 최초 민간 교향악단인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로 출발한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관현악은 물론 오페라·발레까지 아우르는 극장 오케스트라로 독자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지휘자 정한결,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 하모니시스트 박종성이 함께한다.



국립부여박물관 × 김뜻돌

일시: 2024.6.1.(토) 오후 4시
장소: 국립부여박물관 사비마루 공연장

이번 공연은 감각적인 비주얼라이저로 인기를 끄는 밴드 크리스피가 오프닝 무대를 열고, 위태롭고 찬란한 삶의 뜻을 찾아 부르는 김뜻돌이 이어서 무대에 오를 뿐만 아니라 6월 처음으로 선보이는 국립부여박물관의 야외전시장을 함께 소개한다. 공연뿐만 아니라 박물관과 어우러진 정원에서 유물을 편하게 감상하고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국립전주박물관 × 다양성

일시: 2024.6.8.(토) 오후 3시
장소: 국립전주박물관 야외

모든 순간을 노래하는 밴드 다양성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특별전 <미륵의 마음, 모악산 금산사>에 대한 감상을 나눈다. 전북특별자치도민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안식처가 되어준 금산사의 역사와 문화를 공연과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선사한다.



2024년 6월
국립중앙박물관 큐레이터와의 대화

일정은 박물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78회

18:00~18:30

19:00~19:30

6.5.

선사·고대관	중근세관	조각공예관	세계문화관
동물모양 허리띠고리 부여삼한실(104호) 고고역사부 이나경	고려시대 사람들의 밥심 고려1실(113호) 미래전략담당관 성재현	도자기의 빛깔 백자실(305호) 보존과학부 이혜순	로마의 연회문화 그리스·로마실(311호) 디지털박물관과 백승미

779회

18:00~18:30

19:00~19:30

6.12.

서화관	어린이박물관	역사의 길	선사·고대관
나무에 스민 지혜 - 조선 목가구 목칠공예실(204호) 미술부 황지현	어린이박물관 교육상자 '평생도' 어린이박물관(쑥쑥배움터) 어린이박물관과 김혜정	경천사 십층석탑 역사의 길 전시과 신소연	신라금관의 제작기술 신라실(108호) 보존과학부 신용비

780회	18:00~18:30		19:00~19:30	
6.19.	선사·고대관	조각공예관	기획전시실	선사·고대관
	청동기시대의 상징, 검	절제의 미덕 계영배	기획전 <우리가 인디언으로 알던 사람들>(1)	유리로 보는 신라
	청동기실(103호) 고고역사부 이진민	분청사기·백자실(305호) 보존과학부 곽홍인	기획전시실 전시과 김혁중	신라실(108호) 보존과학부 이승은

781회

18:00~18:30

19:00~19:30

6.26.

선사·고대관

조각공예관

서화관

선사·고대관

토기제작과 사회변화

달항아리가 만들어진 곳,
금사리

불화를 읽는 시간

구석기인의 삶과 문화

신석기실(102호)

금사리

불교회화실(203호)

구석기실(101호)

고고역사부 이상미

분청사기·백자실

유물관리부 윤예지

유물관리부 이경수

(304·305호)

미술부 임진아



webzine.museum.go.kr

표지 이야기

상고시대 사람들이 그림 같은 갑골문으로 하늘의 뜻을 점친 이후 동아시아에서 글씨와 그림은 늘 짝을 이루어 왔습니다. 서화 감상은 다채로움을 즐길 수 있어서 즐겁습니다. 종이와 비단 위를 쓸고 간 붓의 흔적을 더듬어보아도 좋고, 솜씨를 부린 채색의 맛을 보아도 좋습니다. 서화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문학과 상상, 현실과 소망이 한데 뒤섞인 옛 서화가의 마음자리가 드러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서예와 산수, 화조와 궁중기록화에 이르기까지 조선시대 서화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옛사람들이 누린 서화 감상의 즐거움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9 771226 038009
ISSN 1226-038X

06